朝鮮日報

十日夕刊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金炯元 發行所 朝鮮日報社

日本銀行券 (十一月)

釜山 賣買高 七千石

綿糸布 (與一社調査)

今日 時

時評

基督敎徒의 鬪爭

×

自治派와 老會派. 新派와 舊派 일이 紛爭한 談笑間에 解決되지 못하고 司法權의 裁決을 기다리게 되지 不果에 적지 안케 世間의 耳目을 사오납게 하든 大邱南城町의 敎會騷動은 畢竟 司法權의 裁決로도 最後의 斷案이 되지 못하고 다시 棒石이 交攻하는 大混鬪로써 多數의 檢擧者를 내이고 世間의 非議도 또한 자못 尋常치 안은 形勢이다

×

너의 兄弟를 詐欺치 말라 하고 사람의 아이가 사람의 아이를 審判함이 不可한 것을 力說하엿다는 基督敎徒로 그의 敎友를 訴訟함이 不可타 할 것이다 그러나 地上의 天國이 來臨히 完成할 수 업고 人世의 爭議도 되어 免할 수 업는 바이라 하면 訴訟이 반드시 絶對罪惡은 아닐 것이다 다만 그 動機와 밋 經路가 어쩌되엇는가?

×

抵抗과 非抵抗

덧옷을 달라 하는 者에게 속옷外지 주고 오른뺨을 치는 者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이는 兄弟에게 怨恨함도 오히려 罪가 되고 抵抗과 敵對가 人類의 平和를 威脅하는 根本的 禍因임을 高調한 말일 것이다 그러나 天然한 人間性을 無視하야 絶對非抵抗의 實現을 期待할 수는 업슬 것이다 그는 十字軍의 戰役이나 『쌘트、바톨로뮤』의 殺戮이나 或은 其他 宗敎革命의 慘澹한 鬪爭의 歷史를 列擧할 要 업시도 업는 것이다 憤怒、抵抗 및 鬪爭은 人間에서 人間社會의 歷史에서 除外할 수 업는 一大事實이다 吾人은 基督敎人의 鬪爭이라고 一層 더 驚愕할 理由는 업다

×

그러나 積年 交爭의 남아에 다시 拳攀、飛脚、輪杖、投石의 大亂鬪를 演出하는 것은 또한 基督敎人이 아니라고 그를 當然하다 할 理由가 업다 그는 醜態이다 罪惡이다 基督敎를 朝鮮的 또는 民衆的으로 時代에 順應하야 合理化시키는 것은 布敎 四十二年을 算하는 오늘날에 맛당히 全朝鮮的으로 討議하고 또 圖策할 일이다 이로 그 제 裁判場으로 格鬪場으로 그는 奇怪한 失策을 長續하니 그는 全基督敎社會의 一大問題일 것이다

救濟委員出發

×

官權의 强壓과 鐵劍의 威脅미테 無産農民의 運命이 俎上肉과 가티 孤危함을 傳하는 이 때 飢餓의 魔手가 無數한 罹災民을 옹켜잡으려 하는 이 때 救濟金을 모으고 災害地의 饑饉同胞를 訪問하려는 救濟委員은 今十日로써 出發하엿다 零瑣한 金額을 分配코저 함이라 한다

×

昨秋 그의 對策講究會가 發起되고 因하야 救濟會가 振興한 後 今日까지 오히려 各地에서 繼出하는 救濟會는 聽聞者의 期待에 應함이 얼마런고 이제 京城 六千의 金額으로 全國 十一郡 一千五百戶의 最甚한 罹災民에게 平均 五圓의 金額을 配付한다 하니 비록 僅少하나 그 同胞愛의 結晶인 것은 그 意義의 尊貴함을 말함이다 그러나 滿天下의 同胞여 飢餓에 넘어지는 無數한 同胞의 哀話가 이러한 寂寞한 美談과 幷存함이 업게 하라! 救濟는 지금부터이다

九日의 善後豫備會

(北京九日發) 善後豫備會議는 九日午後二時半에 開會되엿는데 出席人員은 百十九名이오 王樹柵氏가 臨時首席에 推薦되야 議事細則을 報告한 後 討議에 入하엿는데 九日에는 段氏는 臨席치 아니하엿더라

國黨一派의 新運動

章氏를 盟主로 政界廓淸計劃

(北京六日發) 國民黨의 前途는 政界注目의 焦點이 되야 잇는 바 俄然 章炳麟氏를 盟主로 한 馬君武、馮自由、田桐、居正氏等 一派는 舊同盟會員을 糾合하야 民黨의 結束을 鞏固히 하야 政界의 廓淸을 期코자 同志에게 檄을 發하엿다 此로 因하야 至今外지 舊同盟會를 中心으로 하야 今後의 國民黨 收拾을 畫策하던 汪兆銘氏 以下의 孫文直系는 章一派에게 除外되얏이 잇더라

케른撤兵條件議定

三國首相倫敦에서 會合

(巴里八日發) 『포치·자넬』紙의 探知한 바에 依하면 佛國國務總理 『에리오』氏、英國首相 『볼드윈』氏 及 白耳義首相 『후니스』等 三氏는 本月末 或은 三月上旬에 倫敦에 會合하야 『케른』地帶에서 撤兵할 條件을 議定할 터이더라

軍縮會議召集權

米統領에 附與 豫算案通過

(東京電) 當局着電 = 軍縮會議 招集權을 大統領에게 附與한다는 字句를 含한 米國海軍豫算案은 四日 上下兩院을 正式으로 通過하야 大統領에게 送達하엿더라

獨政府顚覆陰謀의

체카團員公判開廷準備

(나웬十日發) 獨逸 『체카』團員 中 幾者에 伯林政府를 顚覆하고 且 獨逸國防軍司令官 『폰、제ㅣ크트』將軍 及 大富豪 『후고ㅣ』、『스친네스』、『폰、볼지크』等 暗殺陰謀의 嫌疑로써 昨年에 捕縛된 者에 對한 公判이 十日 『라이푸치히』의 最高法院에서 開廷하기로 準備가 되엇더라

全佛主義者會議

(쌜트無電九日發) 全佛國社會主義者會議는 八日 『그레놀』에서 開催되엇더라

新港根據地建設은 平和的安全을 保證코자

英海相의 辯明的演說

(런바쫑 八日發) 海軍大臣 『메리이』卿은 八日 當地에서 試한 演說中에 新嘉坡 海軍根據地建設問題에 論及하야 가로되 新嘉坡는 極東의 諸艦船이 擧皆 通過할 要路에 當한 地로 英國이 此處에 此等 모든 艦船을 保護할만한 設備를 함은 明白히 英國의 平和的 安全保證에 對하야 直接 重大關係를 미치게 될 事項이라 할 것이다 故로 我國이 此目的으로 因하야 同地에 海軍根據地를 建設한다 하여도 그것은 決코 極東의 一强國을 目標를 삼는 것은 아니다 況 舊同盟國에 對하야는 現在에도 舊日과 如히 深厚한 當意와 友情을 가지고 잇슴은 勿論이다 하엿더라

日露基本條約

審議上奏決定

(東京電) 九日午後零時半 院內大臣室에 臨時閣議를 開하고 新法相 小川平吉氏의 紹介 及 挨拶가 잇슨 다음에 日露基本條約에 對하야 外相의 說明이 잇슨 後 審議한 結果 此를 決定하고 卽時 上奏 批准할 手續을 取하기로 決定하엿더라

世界將來에 絶大意義

日露條約과 前獨帝의 批評

(나원十日發) 『에리려그러프』紙의 通信員은 和蘭에 閑居中인 前獨逸皇帝와 會見한 模樣을 말하야 가로되 同皇帝는 益益多大한 興味로써 國際政局의 趨勢를 觀察中인 바 日露條約에 關하야 批評을 試하되 『카이젤』은 佛國은 黑人을 保護하고 露國은 黃色人種을 擁護하고 그리고 英米는 白人을 保護한다 하엿고 今般 締結된 日露條約은 世界의 將來에 絶大한 意義를 有할 것이라고 力說하엿더라

米露交涉開始準備

보라氏는 無條件承認主張

(莫斯科八日發) 華盛頓에서는 『로스타』通信에 依하면 米國은 今年夏期間外지에 露國과 交涉을 開始할 豫定인 바 『크리지』大統領은 現在 第二回 軍縮會議 招集에 露國 及 獨逸을 參加케 하랴고 今春內에 發送할 豫定인 軍縮會議 招待狀은 此로 因하야 遲延될 것이다 又 『보라』氏는 無條件으로 露國承認을 主張中이나 妥協한 結果 米、露交涉準備委員會가 組織될 듯하더라

獨逸交涉開始

(쌜트無電九日發) 獨逸議會는 通羅와의 假通商條約에 關한 討議를 開始하엿는데 外務長官 『스트레제만』氏는 右條約을 締結할 必要를 力說하엿더라

米國脫會

遺憾演說

(제네바七日發) 七日의 阿片會議는 繼續하야 米國代表의 脫退를 遺憾으로 넉인다는 演說이 數次 잇슨 뒤에 暫間休憩하고 午後는 再開치 안키로 되엇더라

六個條의 法律及勅令案

近近官報公布

(東京電) 九日臨時閣議에서 左記한 것을 決定하야 卽時 上奏裁可後 法律案은 議會에 提案하고 勅令案은 不遠間 官報號外로 公布할 터이더라

一、特別都市計劃區域內寺院에 國有境內地의 讓與에 關한 法律案
一、地方官制中改正의件
一、北海道廳官制改正의件
一、警視廳官制改正의件
一、憲兵條例中改正의件
一、陸軍補充令中改正의件
(右는 朝鮮의 憲兵을 日本憲兵司令部에 屬케 할 것)

英佛直接交涉開始

佛國兩相近近渡英

(쌜트無電九日發) 佛國首相 『에리오』氏 及 財政長官 『크레멘텔』氏는 戰時債權問題에 關한 英國의 覺書를 十日에 審議할 터인데 兩氏는 未久에 倫敦으로 赴하야 英國藏相 『차ㅣ칠』氏의 覺書에 對한 回答을 하는 同時에 對英直接交涉을 開始하겟다 하더라

保證問題와

英新聞의 論調

(쌜트無電九日發) 『데리、엑쓰프레스』紙는 英國이 獨逸의 攻擊에 對하야 佛白兩國의 安全을 保持하기 爲하야 保證을 與할 것을 約束할 수 잇다는 說에 對하야 反對態度를 取하기 始作하엿다 又 『모닝포스트』紙는 『로바트』元帥의 意向을 發表하야 同元帥는 英國의 將來는 佛國의 그것과 全然 一致中이라는 意外의 結論에 達함은 不可能하다 그 理由는 千九百十四年 歐洲大戰開始 以前과 同樣이라고 喝破하엿더라

佛飛行家

長距離飛行

(쌜트無電九日發) 佛國飛行家 『락、메들』及 『아르、사르』兩大尉는 長距離飛行을 繼續하야 佛領西部 『아프리카카이』에 到着하엿더라

豫算審議와

貴院態度 改革反動으로 緊張

(東京電) 衆議院의 豫算審議는 이미 九日 豫算分科會에서 分科會의 決定을 어더 十日 豫算總會를 開하야 此를 決定하고 更히 十二日의 本會議에 上程하야 政府原案대로 可決할 터인대 衆議院通過後는 卽時 貴族院에 送附하야 貴族院은 卽時 本會議에 上程할 것이며 右結果로 貴族院의 本會議는 十三日에

現役負擔法案

衆院에서 可決

(東京電) 衆議院 一年現役 給費國庫負擔法、醫師法律案外 一件委員會는 九日午後三時十五分에 開會하고 討論하기 前에 志賀和多利、山桝儀重、靑苗代、石坂豊一 其他와 文相間에 質疑한 後 討論에 드러가 採決한 結果 多數로 原案을 可決하고 其次에 會計檢查院法中改正法律案을 附議하고 三本法制局長官의 說明이 잇슨 뒤에 바로 原案을 可決하고 三時五十分에 散會하엿더라

治案維持法

立案校正

(東京電) 治安維持法案은 兩院의 協議를 要할 問題인 同時에 日露條約의 批准에도 關係가 잇슴으로 그 案文整頓을 急히 하기로 되엇는데 從來의 案은 그 取締條項이 法文的으로 散漫한 嫌이 有하며 特히 日露修交의 結果로 第三 『인터나쇼날』의 宣傳을 防止할 必要가 잇서 分明하고 嚴密한 規程을 要함으로 此意味로 立案을 校正하엿더라

貴院豫算總會

委員會開會

(東京電) 貴族院豫算總會 委員會는 九日 本會議 散會後에 開會하고 左記 正副委員長을 互選하고 卽時 散會하엿더라

委員長 林博太郎伯
副委員長 石渡敏一

海上衝突豫防

法案改正案

(東京電) 貴族院 海上衝突豫防法中改正法律案 特別委員會의 正副委員長은 左와 如히 決定하엿더라

委員長 片桐貞夫子
副委員長 阪本彭之助

貴革成案

諮詢은 十六七日頃

(東京電) 貴族院改革案에 對하야는 其後 內相、翰長、法制局長官 等間에 議論이 잇는 點에 關한 意見을 交換하고 又 其他 閣僚와 隨時討議를 거듭한 結果 畢竟 最近에 大綱閣議가 承認할 수 잇는 程度의 成案을 得하게 된 模樣인 바 아마 四、五日中에 開會할 閣議에 諮하야 十六、七日頃外지에 樞府에 諮詢手續을 取하게 되리라더라

普選案逐條審議

本會議上程은 卄一、二日頃

(東京電) 九日午後一時半부터 普選案에 關한 精査委員會는 事務所에 開하엿는대 各委員은 七、八兩日 休會中에 自宅에서 硏究한 結果를 가지고 와서 前回에 繼續하야 逐條審議하야 드듸여 第六章外지 終了하고 五時後에 散會하엿는대 六章中에 最難關인 選擧 被選擧權 資格制限 其他에 就하야 여러 가지 議論이 出하엿스나 未決定한 대로 遷延을 不許하는 事情도 잇서서 結局 此等에 對하야 法案의 根本精神을 尊重하야 政府도 異論업는 程度로 巧妙한 辭句로써 修正하기로 決定하엿다 十日도 繼續하야 七章 以下를 附議할 터이나 當日中에 終了하기는 困難할 것이오 結局 十二日에 終了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修正點에 對하야 政府와 交涉함에는 三日 假量을 要할 것이나 案文整理 其他 時日을 考慮하면 十八日의 定例本會議에 上程은 困難할 것이오 아마 二十一、二十二日頃의 本會議外지에 決定하게 되리라더라

過激宣傳의 防止施設

憲兵의 連絡統一

(東京電) 政府는 九日 院內閣議에서

一、憲兵條令中改正의件 及 憲兵練習官制中改正의件

을 決定하얏는데 右는 今回 日露國交回復에 伴하는 過激思想宣傳取締에 對한 政府의 施設의 一端으로 其內容은 朝鮮에 잇는 憲兵을 日本憲兵司令官에 隸屬케 하야 從來 不統一의 傾向이 잇던 日鮮憲兵의 聯絡統一을 完全히 하야 主義宣傳의 危險이 最多한 滿洲、朝鮮一帶의 日本敎育方面의 取締에 努力하라 하는 것이더라

日艦乘組員의 遭難

加奈陀晚香坡碇泊中 英國曳船과 衝突沈沒

(東京電) 海軍省公表 八日午前八時 日本練習艦隊發電報에 依하면 練習艦隊는 加奈陀晚香坡에 入港碇泊中 軍艦出雲의 小蒸氣船이 英國曳船과 衝突하야 直히 沈沒되엿다 그래서 乘組員은 士官一名 以下 全部 十六名인데 其中 死體發見者는 士官二名、卒二名、其他 行衛不明이 九名인 바 目下 搜索中이라더라

日兵死者十一名

=乘組員遭難後報에 依하면 調査한 結果 死者에 下士官五名、水兵六名인데 就中 判明된 死者는 五名이며 加奈陀太平洋汽船의 曳船과 衝突된 것은 軍用汽艇의 大型曳船이며 難을 蒙한 것은 汽船에 乘하얏던 者이오 軍用汽艇乘組員은 皆無事하다더라

日本勞働代表는

鈴木氏確實 來十五日에 選擧

(東京電) 來十五日에 全國各勞働團體로부터 選擧할 國際勞働會議 勞働代表 及 顧問은 鈴木文治氏가 總同盟系의 團體 九十四票를 確實히 獲得하고 海軍勞働聯盟의 四十二票를 合하야 마치 無人之境을 行하는 것과 如히 當選될 것이오 又 顧問은 海軍聯盟의 久能寅夫、八幡製鐵所의 中田末次郎 兩氏가 確實히 當選되리라더라

鮮鐵移管

法律委員會 運賃은 低減希望

(東京電) 衆議院의 朝鮮鐵道用品資金會計法案 及 朝鮮鐵道補助法中改正法律案의 委員會는 九日午前十一時四十分에 開議하고 兩案을 一括하야 議題에 上程하고 柏田忠一(本黨)氏로부터 任用令中 不合理한 點을 指摘하고 更히 鮮鐵移管에 因한 從業員의 退職資金에 關하야 下岡政務總監間에 一二三 問答이 잇섯고 下岡政務總監으로부터 朝鮮鐵道가 總督府로 移管된 것은 朝鮮內地의 產業開發上 便宜 及 國防의 點을 考慮한 結果이라고 陳述하고 그 다음에 吉木陽(本黨)氏로부터 鮮鐵貨車配給運賃問題에 關하야 質問하매 下岡政務總監 運賃은 增價하기는 姑舍하고 將來는 도리혀 減下할 希望이라고 簡明히 答하고 零時十五分에 休憩하엿더라

日露郵便交換

第一便開始

(東京電) 海港官憲은 中央政府의 訓令에 基因하야 日本行 書留 普通及葉書等 信書의 受付를 開始하야 十一日 嘉義丸便부터 郵便物 遞送을 復舊하기로 되엇다 다시 小包 其他 朝鮮經由의 電信等의 復舊에 對하야는 아즉 決定한 것이 업다더라

護憲院外團

全國에 大運動

(東京電) 護憲各派院外團은 九日의 協議會에서 普通選擧案 貴族院改革案의 實行方法에 對하야 協議한 結果 此際에 普選、貴族院改革大聯合會를 組織하고 卽時 實行委員을 薦擧하엿다 委員會는 三派幹部에 交涉을 하고 院의 內外를 通하야 一大運動을 起하기로 되야 全國에 飛檄하는 同時에 大演說會를 開하기로 되엇더라

鐵道速成建議

本委員會開會

(東京電) 衆議院 鐵道速成에 關한 建議案 本委員會는 午後一時四十分에 開會하고 能代 票尻間鐵道速成에 關한 建議案(小池次郎提出)을 議題에 供하야 質問하엿고 其他 建議案 三件에 對하야 當局에 質問이 잇섯고 四時五分에 散會하엿더라

東京地下鐵道

自四月工事着手

(東京電) 大正八年以來의 懸案이던 東京地下鐵道 上野淺草間은 四月부터 工事에 着手하야 今年中에 竣成될 豫定이더라

最近調査의 朝鮮戶口

總一七八八萬人

總督府 最近 調査에 依하면 朝鮮內 居住 日鮮外人等의 總數는 戶數 三百四十萬餘 人口 一千七百八十八萬餘이며 細別은 朝鮮人 三百二十八萬二千餘戶、一千七百四十萬七千餘人 日本人 十一萬餘戶、四十萬三千餘人 外國人 一萬一千餘戶、三萬五千餘人인데 此分布狀態는 左와 如하야 總面積 一萬四千三百十二方里에 對하야 一方里에 居住하는 人口 平均密度는 一千二百五十人이더라

道別	面積方里	人口	一方里平均人口
京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次에 日本人 四十萬餘의 原籍別은 山口縣人이 首位를 占하야 三萬七千三百十人을 算하며 다음은 福岡縣의 二萬九千餘人、長崎、廣島의 各二萬四千餘人等이오 最少는 沖繩縣의 二百四十八人이다 又 在朝鮮日本人口 四十萬三千餘人을 大正元年末의 二十四萬三千七百二十九人에 比較하면 過去 十餘年間에 十五萬九千二百八十二人이 增殖되엿다더라

京畿管內 老朽敎員淘汰

京畿道學務當局談

京畿道管內公立學校敎員整理는 學年末定期異動에 伴하야 五分減은 二割以內의 範圍에서 實施할 터이라는데 此는 通般의 行政整理의 意味보다도 老朽淘汰의 見地에서 行하리라 하며 勿論 經費節約上 多少의 犧牲者도 免치 못하리라 한다 그런데 右에 關하야 京畿道學務當局은 左와 如히 語하더라 現在 所管學校 敎員은 中等學校를 合하야 一千五百餘人인데 小學敎員은 一千三百五十餘人이다 其中에 正敎員은 一千二百餘人이오 其他는 囑託敎員이다 日本人小學校는 四十八校 二百九十七學級에 對하야 敎員 三百五十餘人이오 普通學校는 百卅二校 七百九十五學級에 對하야 敎員 日本人 四百餘人 朝鮮人 一千餘人이니 卽 管內를 普通하야 一學級에 敎員 一人二分强의 割合이다 그런데 新學年에는 日本人側에 五學級 朝鮮人側에 九十二學級이 新히 增加되는 結果 總數 一千百八十九學級이 되는 故로 一學級 平均 敎員數는 現在대로 하더래도 一人一分强에 不過하야 到底히 整理할 餘地가 無하다 然이나 經費節約上 될 수 잇는 대로 緊縮은 勿論 行치 안흐면 안될 것인 故로 幾日 協議會에서 正規의 大學級 以上인 學校에 專任校長을 置하는 規程을 엇던 程度外지 緩和하야 校長도 授業을 擔當하게 되얏스나 此 以外에는 整理의 意味로 退職식힘과 如한 事는 無할 뿐더러 又 明年度는 總督府師範卒業生 三十餘名과 道立師範卒業生 三十名을 新히 任命 增加할 터인즉 若干 整理를 하더라도 此 範圍에서 所謂 老朽者의 定期異動과 同時에 若干 淘汰하는 程度에 不過할 것이라 云云

氣象放送開始

今十日부터

(東京電) 中央氣象臺에서는 十日부터 無電放送에 依하야 航海中인 船舶 一般 及 船舶發航의 主要港에 氣象實況을 通知하기로 되엿다 放送時刻은 午前九時十分、午後三時及八時十分의 三回이오 放送有效距離는 晝間은 五百乃至一千哩、夜間은 此의 二三倍라더라

鐵筆寫眞 投稿歡迎

十字架를 생각하라 (大邱敎會싸옴)

放送無電施設

許可에 就하야 蒲原遞信局長談

朝鮮에서의 放送無線電話의 施設許可方針은 非營利組織인 團體에 經營을 許可하기로 決定하엿다 企業設立에 際하야는 資金의 集成 又는 維持上 元來 一都市 一企業을 原則으로 하는 獨占的 企業인 關係도 잇스며 日本國內 社會의 方面으로 보아서 금번도 此를 非營利組織인 團體로 하야 금 其經營식힘이 最히 合理的이며 又且 一般公衆을 爲하야도 利益인 줄로 認하는 故로 其經營主體는 아모쪼록 基礎가 確實하고 信用잇는 團體를 選하라고 思한다 目下 申請者에 對하야는 一應 根本方針을 指示하야 更히 本方針에 依한 願書를 提出식혀 分許否를 審議할 豫定이다 尙히 細目의 制限과 取締의 方法 等에 關하야는 目下 調査中이다

事業停止와 飼育緬羊處分

條件附無償讓與

行政整理에 依한 事業의 中止 又는 停止를 發明한 것이 三、四件이 有한 바 本年度豫算 七萬四千七百七十二圓의 緬羊飼育事業도 此方針에 依하야 大正八年來의 經營을 舊臘二十五日限으로 廢止되얏다 然而 此의 廢止에 伴하는 緬羊의 處分에 就하야는 出願者도 多數임으로 總督府는 公平을 期하야 愼重한 態度를 取하야 오던 바 今回 政務總監의 決裁를 受하야 左와 如히 無償讓與를 하기로 되얏더라

讓與先	頭數
總督府蘭谷牧馬場	八四
平北	六五
咸北	六二
黃海岩崎牧場	二六四
忠南禮山牧場	二二三
蘭谷機械農場	三一
平壤製糖會社	一
沙里院農學校	三
忠南 松浦菊次	一

右는 勿論 無償인 代에 飼育其他에 關한 嚴重한 條件 例컨대 處分의 際는 承認을 受할 事、飼育에 關하야는 總督府의 指令에 隨하는 等을 附한 것이오 此外 繁殖에 適치 아니한 百二十四頭는 肉羊으로 拂下處分하기로 하얏고 因하야 斃死한 것은 三頭이며 尙且 此에 伴할 技師 其他의 係員은 一一히 轉任 又는 退職하얏고 次에 雞島에 잇는 園藝試驗場도 閉鎖하기로 된 바 其主要部分은 水原模範場에 移管되얏는데 場長의 技師以下 技手三名、傭員三、四名 도 整理를 受하야 豫算 三萬九千七十二圓은 來年度부터 計上되지 아니하기로 되얏더라

敎育功績者

選奬實行

總督府에서 敎育功績者選奬規程에 依하야 大正十三年度에 選奬을 行하기로 決定한 者는 左와 如하다더라

第一條第一項該當者

京畿道仁川公立尋常高等小學校長 中島訂治郎 金四百圓
進明女子高等普通學校長 進明女子普通學校長 嚴俊源 金四百圓
忠淸北道永同公立普通學校長 桑原慶永 金四百圓
忠淸南道大田第一公立普通學校長兼大田公立商業補習學校長 勳八等 照屋敏夫 金四百圓
全羅北道井邑公立普通學校長 古賀新太郎 金四百圓
慶尙北道大邱公立普通學校長 黑木源二 金四百圓
慶尙南道馬山公立普通學校訓導 下相鐸 金四百圓
黃海道安岳公立普通學校長 小穴善浩 金四百圓
平安南道順安公立普通學校長 黑瀨錦邑 金四百圓
江原道揚口公立普通學校長 神谷右衛門 金四百圓

敎育功績者選奬規程 第一條第二項該當者

忠淸北道淸州公立普通學校學務委員 金側時計(金鎖付)一個 金[illegible]培
忠淸南道全義學校組合管理者 金側時計(金鎖付)一個 鈴木賢治
全羅北道地境學校組合管理者 金側時計(金鎖付)一個 大倉米吉
慶尙南道西生學校組合管理者 金側時計(金鎖付)一個 守屋利助
黃海道私立金山浦普通學校設立者 金側時計(金鎖付)一個 富田儀作
全羅南道元私立月坪普通學校設立者 金側時計(金鎖付)一個 金時中
平安南道私立光成高等普通學校外十五校設立者 花甁一個 쎄쎄、제드、모어
平安南道私立崇實學校外五十九校設立者 花甁一個 에스、에이、모페트
平安北道龍岩浦學校組合管理者 金側時計(金鎖付)一個 吉田雅一
咸鏡北道會寧公立普通學校學務委員 金側時計(金鎖付)一個 金聖均

良德水利組合認可

左記水利組合이 二月十日付로 成立된 旨를 同日付 總督府告示 第二十號로써 發布하엿더라

一、名稱 良德水利組合
一、區域 咸鏡南道北靑郡德城面西庄內里、東庄內里、北靑面西里、南里、棠浦里、東興里、獐項里、良家面初里、中里地內

京畿道의 產米高

大正十三年 京畿道管內 米生產高는 粳米 百三十七萬九千三百七十四石 糯米 七萬六千五百八十七石 陸米 九千四百六十三石 合計 百四十六萬五千三百二十四石으로 前年에 比하면 九分五厘의 減收이며 一反步平均 收穫은 粳米 七斗四升 糯米 六斗八升 陸米 三斗一升四合이더라

金剛電과 滿鐵線

聯絡運輸開始

滿鐵線과 金剛山電鐵의 旅客貨物聯絡運輸는 二月十日부터 開始되엿는데 此에 關한 運輸規則은 十日의 京鐵局報로써 發表되엿더라

人事消息

▲服部宇之吉博士(東京帝國大學文學部長) 京城帝國大學開校準備事務를 帶하고 十日夜入京 『朝鮮호텔』에 滯在中

▲洪命熹氏(東亞日報編輯局長) 十日朝 府內崇四洞一六七番地 自宅에서 遭王大人承重喪

八面鋒

○段執政은, 軍事行動의 一切停止를 通電하고, 張將軍은, 時局對策이, 武力統一에 잇다고, 主張하엿다 한다、서로 떠나지 못할 輔車唇齒의 意見이、이러하면 以下의 群小는、무엇을 準備할 것이냐

○前獨逸皇帝가 『日露協約의 成立은、世界將來에 絶大한 意義가 잇다』고、호캄을 불엇다 한다、참새가 방아간을、이즈랴

○臨終이 切迫되엿다던、孫文氏가 廣東의 士氣를、鼓舞하엿다 한다、死諸葛이 生仲達을 能히 쫏는 것가 리、氣息奄奄한 孫中山은 能히 陳炯明을、또 쫄모양、

新學期에 使用하실 學用品은 弊店으로 下命하시압

Ⓚ

鐘路洋行雜貨部
京城鐘路二丁目
電話光化門五〇八番

空氣銃廉賣廣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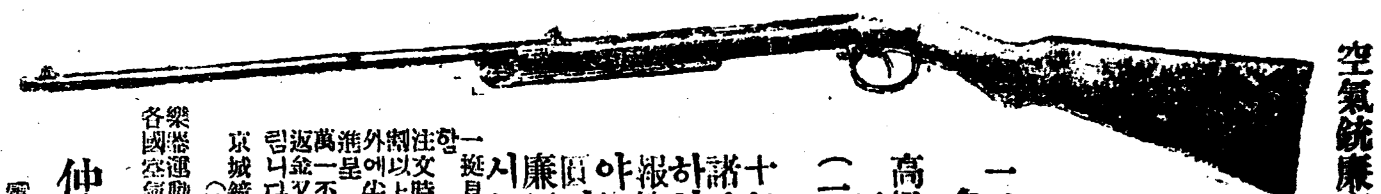
一、獨乙製 タイアナ AEE
高級全長三尺五寸 二十七圓
(二)一般 二十圓

十年間 地方諸氏의 信用을 하신 鴻恩을 報答키 爲하야 特價 二十圓에 提供하오니 眞價를 아시는 人士는

一挺見本的 注文拜望

一、注文時는 必히 先金 二割以上 送金을 希望함 外에 尖頭彈 一袋 無代進呈 萬一 不合意하실 時는 返金 又는 交換하야 드림니다

京城鐘路二丁目五六 (地方法院前)
樂器運動具 各國空氣銃 都賣直輸入
仲商會
電話光五七一番



職業

本業은 土地의 遠近及 男女兒孩의 別업시 自宅에서 될 수 잇스며 利益잇고 有望한 本職業 好適한 製品을 買受할 者는 業內容書를 進呈 希望하는 者는 業書로 請求하시요
大阪市外庄內浦江
合資會社 都商會
電土二一八六七

朝鮮日報讀者優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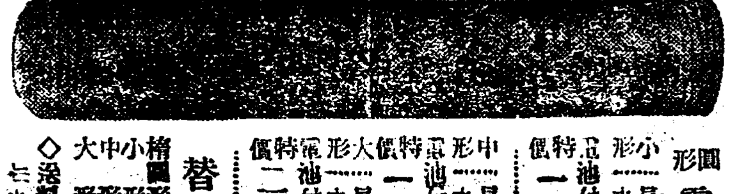
棒圓形電燈 長三寸五分 巾一寸五分 電池一個共
特價 九十錢
先金送料無料
代引送料二十錢

送料無料 先金注文者에 限함

[illegible]

京城本町二丁目
우쓰보야貿易部
振替京城二三二二 電本二五二二

懷中電燈大特價 光力絶對 夜間安全



圓形電燈
小形 長約六寸 丸經一寸 電池付 特價一圓三十錢
中形 長約六寸 丸經一寸五分 電池付 特價一圓八十錢
大形 長七寸五分 丸經一寸五分 電池付 特價二圓五十錢
替電池 小形 三十錢 中形 四十錢 大形 五十錢 棒圓形 六十錢
◇送料先金의 時는 九錢을 要함

國爭의北栗面에서

東拓社員淘汰說
삼원내로만히도태한다고
特派員 李 爽 電話

이번쟁의중의 문뎨인죽내(竹內)는도태를당하야사인면(舍人面)으로로갓스며 동척사리원지뎜장시아강(矢野康)이하권한사원은오는 삭일발경에만흔 도태가잇슬뜻하다하고 또 동척북률면주재소원(駐在所員)한채선(韓采善)유정(油井) 가문(加門)김승학(金承學)등도불원간도태를당하게되리라더라

向上幹部逃走
말일종적을감추어

향상회(向上會)의 회장 최태화(崔泰和)와그회고문(顧問)최정익(崔正益)은말일에어데로인지 도망하여 행방불명이 되엿다더라

向上會員 身邊警戒
주일학교교장 홍종설은권고사직

북률면에잇는 야소교 주일학교(耶蘇敎主日學校)의교장으로잇는홍종설(洪宗卨)이가 향상회(向上會)와관계가잇다는일로그교회의목사들은 서양인 선교사(宣敎師)와교섭하여가지고권고사직(勸告辭職)을식히기로결뎡하엿스며 향상회부회장 로권순(盧權淳)은신변이위험하야임의로출입을못한다더라

應援警察隊
재녕에서파견

재녕(載寧)경찰서 에서는 북률면민의 만일행동을념려하야 응원경관대를파견하엿다더라

公普先生들도
동척주구노릇

북률면에잇는 공립 보통학교의선생들은 그 학교 생도들에게 『너희들의부모가 소작쟁의에 참가치안토록 너희가 잘운동하라』고말하엿슴으로 일반은그선생이무스리유로 그런말을 하엿느냐하야비난이만타더라

日給二十五錢에팔려 農民數千의呻吟
전남남해군연호리방축공사
일본인팔목의학대와구박에
死線에立한燕湖里民

전남 해남(全南海南)군 연호리(燕湖里)는해남읍에서약삼십리되는곳으로 말할수업시 교통이불편한 산중의 궁벽한농촌으로밧이나 논을가려근근히 살어나가는바 금년한재로인하야 밧헤곡식은다고 논의물은말러 반작도거두지못하야 먹을것 입을것을구하기위하야 남부녀대로 북으로북으로 산설고물설은 간도(間島)로도가고 지게를지고 도회로로동을나가는사람도잇서서

한동리가 비참하게도폐허가되얏다 그런데 행인지불행인지대판(大阪)산다는팔목(八木)이라는사람이와서 황무디를개간하게되야 한오백여뎡보(町步)의바다물을막고 독을차케되얏다 그러케되야 수백명의인부를사용케됨으로 그촌사람들은생명이나 열리엇는가하야 그공사현로 몰려가게되얏다 그리하야주림에 우는촌민은 품삭의다소를불고하고 살기를위하야 아츰부터 저녁까지하루를 바다가며주림을견데지못하야우는

어린아들 과붉은부모의 죽한끼라도 먹게할생각으로 오히려 그나마라도 일거리가업서 질것을겁하고 가슴속에 타오르는원한을 울억울억참고 지내왓다그런데 팔목(八木)은 그주림에우는 인부에게너무나 혹독하게피와뼈를 배앗는다고 수백명로동자의 원성은자자하고 아사의구렁에 빠진한동리 수천인민은 긔한과주림에 못견듸어하늘을부르지저호소한다는데로동자중의한사람은다음과가티하소하엿다

最後運命은 하늘에맛길뿐
로동자들의하소연

『우리는 밧이나 어더부치고논이나 부치어서 남의소작으로근근히 지내왓습니다 그러나작년에한하야는 권조선이다 당하는한재이라 이곳에서도 역시반작도못한데다가 무리한 소작료를주고보니 빗자루만들고 나서게되야 우리의생활은 말할수업시되얏슴니다 양심이업스면 모르거니와 만약양심이 잇다하면그와가티는 아니하겟지요 우리촌은 작년한재로아조 폐허가되야혹은 남부녀대로 북으로북으로간도를향하야 가는사람, 지게를지고 살길을차저서 갓가운도회로헤어저가게되엿슴니다그런데

마츰그때 대판사는팔목이란사람이 바다물을막어 황무디를 개간하게되야 우리촌중사람은 모다이에살길이나 맛난드시덤벼들게되야 얼마안되는 삭전을 바다가지고 근근히부모처자를 련행하여왓스나 그들의화대는 과연견딜수가 업습니다아츰부터 저녁까지 하루열두시간로동에 품삭은이십오전으로 혹십전이올시다 그러면 품삭으로엇지하겟슴 살수가 잇슬닛가조죽으로 그날그날을 지냄니다그것도 오히려업는것을 한탄함니다 그런가운데에도 데일악착한것은그와가티적은삭전도

매일주지 안코열흘혹은십일려서줌니다 그리하야 하로를하면하로일에 대하야(만보)(일원)다는표(票)를준니다 열흘동안에 만보열게가모혀서 그것을주고 삭을차줌니다 그러하니우리가티 가난한사람이 엇지열흘을견딜수 잇슴닛가 그리하야동디명방에서 외상으로 열흘을것다먹고 돈을바다서줍니다 그리하야 외상이라고 어려운우리에게무리하게도 비싸게 밧습니다그러니 엇지주인들 먹을수가잇겟습닛가 또악착한것은 열흘임을하고도

만보하나 만일허버리면하로의삭전을 주지안코 만약일홈안에 현금이필요하다고 열흘고별려서 어려운사정을 말하면만보한장에 일원식을 빼고 줌니다 아ー이러캣기고 저러캣기니엇지살수가잇슴닛가다만우리는하늘을부르지저호소할뿐이요최후의운명을기다릴뿐이올시다』(목포)

一條도斷不許容
대동인쇄직공동맹파업
회사편태도가더욱강경

시내공평동(公平洞) 대동인쇄주식회사 (大東印刷會社) 문선과(文選科)직공삼십이명이 구일오후네시부터 동맹파업을 하엿다함은 이미보도한바와 갓거니와 직공편에서는 긔보한여섯가지조건을 가지고 구일밤으로사장홍순필(洪淳弼)씨에게교섭을하라하엿스나 구일밤에는 사장을맛나지못하야 교섭을 못하고십일오전팔시경에야직공측대표박래원(朴來源)강건환(姜建煥)량씨가 사장을 자택으로방문하고 전긔여섯가지조건을 교섭하엿스나 한가지조건도 승인할수가업다는 섭섭한 거절을 당하고도라와서 십일도 역시취업치아니하엿다는데 회사측에서는 절대강경한태도로 한가지도승인치아니할터이라더라

實際事情不許
사장홍씨의말

직공은십일에도취업치아니하엿고회사측태도는절대강경하다함은 별항과갓거니와 이에대하야그회사사장홍순필(洪淳弼)씨는말하되우리회사는본래그다지만흔리익이업서왓습니다 그러나직원이나 사무원은 한푼의상여금이업서도 그들에게는 다만얼마식이라도 매년상하반긔에 상여금을주어오다가 근년재계 공황으로 회사의결손이 너무만하서작년상하반긔에는

상여금을 주지못하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이것을영리보다도 일백오십여명의 직공측근천명의 생활을 유지하게되는고로 그것을 오히려 사업으로알고 하여오는터임으로 아모리 회사측결손이 만튼래도 직공들에게는 뎌한 피해만 주지는안흣라 하엿든바 불연히청천고사(成績考査)문데 가도화선이되여 그와가티 파업까지한모양이나 현하경제계로 본다든지우리회사 형편으로 본다든지또는식자과(植字科)인쇄과(印刷科)연판과(鉛板科)등 근십과되는각과를 생각하든지 도모지

한가지도 승인할수업습니다 오늘아츰 대표두사람이와솔여에 다시취업을하고 교섭할일은 차차긔회를보아가면서하는것이 조타고여려가지로 권고하엿는데 오늘도역시 취업치아니하면 곳다른직공을 채용하야쓰는수밧게업습니다하더라

兩重役모다病臥
뎐차승무원의요구절눈중
일이조는중역병으로보류

경성뎐긔회사 뎐차과 승무원의단결로된 운수동우회(運輸同友會)에서네가지조건을 드러대표교섭위원김영수(金永壽)외네명이구일 하오다섯시 이십분경에뎐차과로뎐차과장을차저본결과

一、금주저축장려회금은긔본금뿐만이아니라리익금까지배상할일

二、지각이나결근을하면그벌금을바다왓는데그벌금은반드시지각 결근자의 머리로나아가는승무원에게 상금으로 주게된규뎡을 무시하고 벌금은년래로바다 오고 상금은 한푼도주지아니하얏스니그것을권부지불하야줄일

등두문데는 목하권부상부가모다병중임으로 병이낫기까지 보류하엿다가회답할일

三、해용처분을당한사람에게서빼아서오든신원 보증금은무엇에썻는가

四、승무원간에서잘못한일이잇슬때에 일원내지오원식 바더오든소위『과태금』이라는것은바다서무엇에썻는가

등두문데는 권부회사의 잡수입(雜收入)에 편입하얏스며 해용처분에에 신원보증금 몰수는반드시 권부가 아니라승무원의과실과 회사편의 피해정도를따라일부혹은 권부를몰수한 것이라고대답하얏스며데 오조로추가한

五、뎐차 안에서 어든물건을두엇다가 경매를 하야모흔돈은 엇지하얏스며 승무 원에게매삭 오십권식 바다서 경영하든 『공제회』의 회비의결산보고를하야줄일

유실물 경매대금은 잡수입으로편입되얏스며 공제회비는 뎐차과장이 조사보고하겟다는 회답을듯고 데일중요한 일조이조의회답은권부 상부의 병이낫기까지기다리기로 하고 산회하얏다

監督들도保留
중역의병으로

뎐차과감독 일본인들도 평소에품어오든불평을드러회사편에하소를할긔세가보히엇스나역시권부상부의병보를듯고일시중지상태에잇다더라

感冒로缺席八百名
경성시내의류행성감긔

요사히 긔후의 변동이련일심하야시내에는 류행성 감긔가만연되야 각학교에는 결석자가현저히만하 첫는데그중에 일본인소학교가 더욱심하야 시내십교에매일평균 결석생도가 오백사십륙인이며 보통학교 십팔개소에매일평균삼백십여명에이르러일반은 매우 우려중이더라

運動競技

壯年對西洋人 籠球復讐戰
二十七日頃에

鍾路青年會館壯年部對西洋人籠球復讐戰은今月末頃에열豫定이라는데負傷된選手들의練習如何를기다리어來二十七日頃에는行할듯하다더라

開幕되는 稻門三田戰

日本球界의雙璧인稻門三田野球의今年劈頭戰은來三月中旬부터行할터인바昨年連敗의三田軍도必勝을期하야자못勝負를難測이며大每軍도三田에는東京에갈豫定이라는데兩軍의멤버와日定은如下

◇第一回戰三月二十一日부터三日間(早大球場)◇第二回戰同二十八日부터三日間(田園都市)◇決勝戰場所는早大球場

(稻田)			(三田)	
大槻	竹內	(投)	小野	永井
	谷口	(投)	濱崎	
小鑑	宮崎	(補)	森	岡田
	有田	(一)	三宅	大川
	山崎	(二)	腰本	
	井口	(三)	新田	三村
久保田	根本	(遊)	桐原	
高松	堀田	(左)	高須	茂
	瀨木	(左)	高濱	
	氷室	(中)	山岡	
河合	松本	(右)	高須	橋本

3對0早大勝
對慶應蹴球戰

日本早大『아』式蹴球리구戰은七日午後三時부터戶塚球場에서行한바早大軍은처음부터優勢를取하야試合十八分만에첫한點을익이고그後에또한點을어더前半에二點을익이고後半에한點을또어더遂三對零으로早大軍勝

講武館進級式
十四日에연다고

市內樂園洞에잇는講武館에서는그동안日夜練習을한바三週日當萬哲授與式과進級技의進級狀授與式을十四日午後六時에同館에열고衆多하야館長懇親會도잇다고

北栗東拓罪惡記
『남으리』에서―李 爽

北栗一의 권리자는동척
경관사지무력

북률소작쟁의! 조선의 현상을가장대표뎍으로 말하는 이소작쟁의! 문데가매우 중대한것은세상사람이 이미 소문에의하야거의짐작할듯하나 그러나 그실디의 애닯은사정과 참혹한정황은 아즉도몰을것이다 내 (리독파원)가 이곳북률면에와서몸여의 모든행정을하는것과가튼 이곳에는동척주재소(東拓駐在所)이라는것이 총독이나 다를것업시일면민을 마음대로 휘둘러서주재소원자신들도 자긔는 북률총독이라고 자칭한다고한다 이소위 북률총독이라는 동척주재소압헤는 면사무소이나 경찰관주재소이나 무엇무엇할것업시 굴복을하지아니할수가업서서행정권이나 경찰권이나 모든권리를수중에너타십히하고 힘업는 소작인에게 마음대로 법률약수단을다하다가 필경반항권이 생긴이후로는 더욱횡포를떠하야 오늘날별주에 공공연히 총까지노흔사실도 발생하게되엿다 의와가티 병수, 독사가튼 동력압헤서 엇지할길이업시 다만밥은고시드러가는 소작인의 생명은거의거의저물어가는 락조(落照)와가튼 운명이다 아ー그들의원상과 장래는 보는사람의눈물과탄식을 금치못할뿐이다 이북률면에 춘추가빗귀일날은 어느때일가?

『남으리』가 『굴무리』로된 북률면의래력

그러나 이북률면민이 원래부터이러한 운명은 아니엿든것이오또한장래도 이러하라는법은 업는이러하다북률면은재녕군관내이른기까지의래력을이에소개하로재녕강(載寧江)과서강(西江)사이에잇는동면뎍약삼천이백여뎡보의망망한큰벌판으로냇날에는주민이농사를지으면먹고쓰고도만히남는다하야남으리벌판이라는일홈을 갓게되여서 지금도굼머죽을벌판이지만은 일홈만은아즉도 남으리 벌판이라한다이벌판 총면뎍중에는 국유(國有)가일백사십팔뎡보이오 민유가일천사십 여뎡보이오 그남어지일천팔백 팔십여뎡보는 모다동력의 소유디라한다 이로부터약삼백 오십년전에 임자가업는황무디이든 것을 부근주민이모혀들어 죽을애를써서 작답을하고 그때에는 오늘날이라는것은꿈에도 생각하지못하야 만치 유족하고평화로운 생활을하여 왓섯다그후 약백년후에 부지런한백성의성력으로 그땅은점점 량던옥토가되매 한국정부시대에 그디방관헌이 은연히 침을생키고쌔아스라는 긔색이 보히엿섯다그쌔에는 세상이여간 어수룩하지아니하야 관헌의 명령에는그보다더한 것이라도 응종치아니할수가업슴으로 주민들은 예방책에 비상히고심하든 모양이엿섯다

官員대신宮家
넷저부터바더온
권력과재력의압박

주민들은 마음을매우 조리는가운데 뼈바으로 선후책을강구한결과문득 한가지계책을 엇게되엿스니 아모리디방 관헌의세력이무섭다 할지라도 궁가(宮家)에는 고양이압헤쥐라 그영을궁가에위탁하면 어느누구의 령이라도범녀할 바가업다는 생각으로주민중의 몃사람이 그쌔로말하면 한양(漢陽)으로 올라가서수진(壽進)궁상(宮祥)명례(明禮)궁상궁가에 위탁하고위탁료로매년 주민이 자량하야얼마식을바치기로 되엿섯다 그러나궁가에서도 속마음은 디방관헌보다나흘 것이업섯든지 그후약륙십년 되든해에 심한한재와수재로 위탁료를 바치지못하엿더니 궁가에서는 무조건으로그영을 바람하고다만 소작권만영소작권(永小作權)으로소작료는사분일(四分一)을징수하야매년궁가는 약만석의 추수를하여왓섯다

宮畓으로國有에
국유로동력에
긔구한동력과의인연

영을빼앗긴 주민들의 불평과원한은 업지아니하엿슬터이지 만은 그래도나의영이나 다름업시소작을 하여왓섯다 그리다가앵치사십년경에 궁가의 재산이국유재산으로 편입되는바람에 이영도역둔토(驛屯土)라는명의로잇다가 뭉사십이년도에 한국정부에서는 동양력식회사의 주금으로 출자하야 백성의피땀이영키인이영은마츰내조면부지의동력회사의손으로넘어가게되엿다동력과 북률면민의 이인연은과연길할것이냐?불길할것이냐?운명의신이 아닌다음에는 알수가업는일이지만 수백년동안 색리깁게박히여 살든그들이 필경쇠퇴(衰退)구축(驅逐)파멸(破滅)이업지아니하얏섯든 것이아그누가 농히알앗스랴? 이에북률면민은 만경창파에서 암초에걸린배와가튼 신세를 짓기비롯하엿다 한다(구일발)『계속』

마천부터 논비판의 말을하더니마츰내 그가터악착하게 죽음의길을취한 것이라는바 그의침실벽에다가『불효자는 생활곤난으로비판 자살을함니다』라는간단히유서를 금년륙십이 갓가운그의붉은 아버지에게 남겨두엇다더라

入學難對策研究
구일밤교육협회안에서발긔
십륙일창립총회를열터라고

경성부내의학령아동의입학난을엇더케하면구제할가하야유지제씨가노심중이라함은이미보도한바어니와 구일밤에 시내수표뎡조선교육협회(朝鮮敎育協會)안에유지이십여인이 모히여 부내초등학교 아동입학난 구제책연구회(初等學校兒童入學難救濟策研究會)의발긔회를열고 여러가지로의론한결과 위선위원 삼인을선거하야 다음에 긔록한바와가튼 사항을 됴사케하고래십륙일 하오칠시부터 역시교육협회안에서 창립총회를 열고대책을강구하리라더라

◇委員과調査事項
▲鮮于鋕=學校數
▲朴海暾=收容力兒童數
▲趙東植=學級關係

四郡代表의陳情
專賣局員橫暴로
전매국장도주의식히겟다고

평북태천군원면속흥동(泰川郡院面俗興洞)박동준(朴東俊)씨는태천귀성(龜城)뎡주(定州)박천(博川)네고을주민의대표로수일전상경하야 전매국장(市木專賣局長)을직접방문하고디방민에에대한 전매국원의 횡포한행동을들어 진정을 하얏다는데그내용은 작년십일월분에 총독부전매국안주(安州)출장소의사무원한뎡제(韓貞濟)리장희(李長熙) 김병삼(金炳三)등은연초준매조사(烟草準賣調査)를구실로 태천등디에 출장하야무리하게가택수색, 준패강탈, 고자리(담배순쓰리기말넌것)몰수등을함부로하며 질욕구타등 백성에대한횡포가 여간이 아니엇는데이에대하야 일반인민은 크게분개하야 안주출장소와 군령에진정을하엿스나 별효과를 엇지못하얏슴으로 마츰내 진리박씨를대표로뽑아 직접상경케하야 전매국장을 맛나보고 진후사실을직접진정하게한것인데전매국장도 그사정을 짐작하는듯시금후로는『고자리』는농가의자유에맛기고 몰수한준패도 환부하고각디방출장원의 횡포도 특별히주의식히겟다고확언하얏다더라

密偵銃殺한三名
각각십이년징역을불복공소

중국간도(間島)일대에서일본측의비밀탐뎡(密偵)이라고소문이놉든 간도연길현숭례향흥성습자(延吉縣崇禮鄕興成拾)에사는리병준(李炳俊)을잡어다가취묘의비밀탐뎡이라고 드되여 수풀속에결박하여안치고 총살하여버린 대한국민회데십오지회(大韓國民會第十五支會)재무원(財務員)김희백(金熙伯)(二六)서긔(書記)김성한(金成漢)(三一)통신원(通信員)강동렬(姜東烈)(二五)등삼명은 대한국민회 데십오지회본부에 날마다 밤마다 모히여서장총과권총등무긔를만히준비하여두고 또일본측의 비밀탐뎡을데포취묘하여다가처벌하는책임을 지고전긔리병준을총살한후그가가젓든군권과귀금속품과 말(馬)까지가저다가 군자금으로그군데의총사령관인홍범도(洪範圖)에게 바치엇스므로 금년일월이십이일에 청진(淸津)디방법원에서 세명이다 각기징역십이년에처한것을불복하고 경성복심법원에공소하엿다더라

穀物商의 縊首自殺
원인은생활난
창고들보에목을매어

고양군한지면 한강리(高陽郡漢芝面漢江里)삼백륙십번디 곡물잡화상 리종래(穀物雜貨商李宗來)(五十)는지난 칠일밤에 자긔집창고 안에드러가서 목을매여자살하엿다는데 그죽은 원인인즉근래에 장사시세가 조치못할뿐아니라 또는남에게 외상으로준돈을건 대궁수백원을 도더히바들도리가 업는동시에 빗바들사람은날마다와서 조르게되매 얼

咸北道廳全燒
구일오후팔시실화로소실

구일오후여덜시 오십분에 함경북도텽(咸北道廳)에서불이나서 전소하여버리엇는데 원인은 실화이라하며 자세한것은 조사중이라더라(경무국착뎐)

◇전소되얏다는함북도텽전경

兩頭一身畸形兒
밀양에서나핫다

밀양군상동면금산리(密陽郡上東面金山里)에사는 안종이(安鐘伊)의 안해 김성녀(金姓女)(三三)는 해산긔미가잇서 칠일동안을 신고하다가 지난팔일에해산하는데 아이의머리만 겨우나오고 몸은 나오지아니함으로이틀동안이나 산모는죽도록 고생하다가 삼랑진제천의원장 김용진(三浪津濟川醫院長金容震)씨를청하야 수술(手術)을하야해산을한즉 아이는 그만죽엇는데 계집아이는 분명한바몸은하나이요 머리가둘이며 팔과다리도넷이오 배곱(臍部)으로부터 가슴까지 피부(皮部)가 한데부터서아모리보아도세상에처음보는것이라하며 그산모 김성녀는 근근생명을 보존하얏다더라(밀양)

不正裁縫機械
속여판혐의로
데포된징거사원

서대문밧합동(西大門外蛤洞)십칠번디현영섭(玄正燮)은지난오일에서대문서사법계(司法係)에잡히여방금취됴를진행중인바그자세한내용은 아직발표하기를 쓰리는모양인데 사실인즉 전긔현뎡섭은종로일뎡목(鍾路一丁目)에『씽거』재봉회사지뎜 (裁縫會社支店)을경영하면서 재작년동경진재(東京震災)당시에불가운데드러갓다가나온재봉긔계를사다가조흔것처럼 속여서팔엇다는 혐의인바 증거품으로 긔계의매도증서(賣渡證書)와뎐당표 (典當票)등을다수히 압수하엿다더라

鐘路署에美人泣訴
시부와남편도업는동안에
시모가돌연히병으로죽어
五日間을呼哭소레

시내수은동(授恩洞)일번디오긔준(吳基俊)의처조오순(趙五順)(二七)이란 미인은 구일오전십일시경에 시내종로경찰서 보안계에와서애통의눈물을먹음고마음잇는사람의 창자를 알흐게하는무슨

하소연을 장시간동안하야 경찰관으로도 오히려동정을마지안케한 일이잇섯다 이제그내용을듯건데 그는의식부모와그남편과 어린동생남매와 가티극히곤난한생활로그날그날을사러오든중 지난오일에 사십삼세의시어머니가 돌연히 병이드러중태에빠젓섯다그남편은

음력정월 이일에안성군죽산(竹山)그숙모(叔母)에게다녀오겟다고 떠난후 소식이묘연하고 그시아버지는 그와가티병이중태에 빠진것을보고 무슨추선을하려간다고 석골로간후 역시도라오지 아니하엿다 조오순은오직 어린시동생 남매를 다리고 시어머니 병간호에정성을다하야 로력하엿스나 약석이무효하야 마츰내세상을 떠낫슴으로조오순은 졸디에 그와가튼일을혼자 당하엿슬뿐아니라 수중에푼전이업서서장사할도리가업슴으로 시테를부둥키고 애통하는동안에어언간

닷새동안 이나지낫슴으로그는 생각다못하야 그장사지낼것을 종로서에 애원한것 이라는데 종로서죽지웅 보안계주임(竹之熊保安係主任)이여러가지로로력한결과 조오순의 집주인인신좌영(申佐永)씨가 그장비를당하야 구일오후에 장사하엿다는데 그시아버지와 남편은지금까지 도라오지아니하엿다 는바그광경을 본사람들은 그시아버지와 그남편의 행동을심히분개하며조오순의 정경을 뭇업시동정한다더라

苦學生圖書部
동정을바란다고

동대문밧 신설리(新設里)에잇는 고학당(苦學堂)에서 개교만이주년긔념사업으로 동학당내에 도서부(圖書部)를 설치하라고 각방면으로 활동한결과일반동지의 동정으로 각종서적이다대소는준비되엿 압흐로도 만히동정하여주기를바란다더라

救濟委員變更

조선긔근구제회(朝鮮饑饉救濟會)에서는빈민을구제하고저네대(隊)로난호아 출발한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예뎡과가티 서뎡희(徐廷禧)씨는십일아츰에호남(湖南)으로 향하야떠낫스며 회녕(會寧)에떠날경인 양인택(梁仁澤)씨는 사정으로인하야송봉우(宋奉瑀)씨가십일일아츰에 떠난다더라

露語研究會

종로청년회주최로 래십륙일부터 로어연구회(露語研究會)를개최한다는데 강사는김동한(金東漢)씨요 기한은삼개월이오 매일시간은 하오네시부터요 입회금 일원월사금 일원이든다고

少年燒死
어름우에서
불을쪼이다가

전남장성군안양면수문리(全南長城郡安良面水門里)최종화(崔鍾華)의장남 최영송 (長男崔瑛松)(三)은지난사일에 동면공립보통학교에통학하다가 불에타서참혹히죽엇다는데그내용을들어보면그동리사는최봉우 (崔奉佑)(二)와손동개(孫同介)(三)동세아이가 학교에 갓다오다가어름우에서놀든바치위를못이기어불을피우든중의복에당기어그와가티참혹히죽은것이라더라(장흥)

父子牛賊
여러해를두고
각처에서도적

평양경찰서에서는 작년겨울에데포한대동군률리면리재순 (大同郡栗里面李在淳)과그의아들리몽곤(李夢坤)(三)은자긔의아 과가티평안남북도 황해도 함경남북도를횡행하며 명치사십오년이래로 소도적질을하야 생애를하여오든세상에드물는 소도적인바 이자는방금평양형무소에서 징역을 살고잇스나그자외의아들리몽곤은그후행적을감초앗슴으로평양경찰서에서는 각방면으로 범인을수색한결과 최근에와서함북청진(淸津)에 잇는것을탐문하고데포하야지난팔일 평양서로 압송하여왓다는데 이자는 소도적외에도범죄사실이만타더라(평양)

종명자

▲경성시내각소학교에서매일류행성감긔로결석하는아이들이팔백여명에달한다고 한다, 어린아이잇는집안에서는특별히주의할필요가 잇슬것이다 ▲동척의주구노릇을 하든 재녕의향상회원들은신변이위험함을늣기고모다몸을 피하엿다고, 죄악에범한자는 사람이 이욕외할지라도 하늘이 용서치안는것이다 ▲경성뎐긔회사 승무원이 두번재문데를 이르키랴하자, 그회사의뎐무와상무가 동시에 병이낫다고, 류행성감긔에나 걸리엇는가, 그런을병이낫것인가▲대동인쇄회사의 동맹파업은 십일에도계속회사편에서는 절대로 돌어줄수업고 나종에는 새직공이라도채용하겟다고, 직공제군은 엇지하라는고

老少腎氣强壯專門 더ー리新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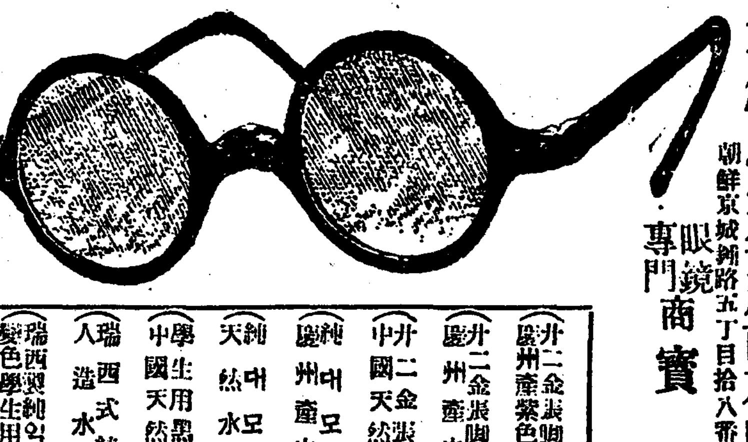
人生의무엇보다快樂한것이무엇인가 欲望은衣食住가足한以上에는一生一代의快樂함이第一이라此더ー리新藥은老少腎氣强壯劑로男女諸位의〇〇맛든回春藥이온바七十老人일지라도服用一週日內로〇〇〇〇〇〇〇〇快樂을任意로할것이오靑年諸位는〇〇을過度히하야興케할念慮로服用하면二三月式停止하야다가服用케되는데如何히衰弱한不足症神經衰弱을勿論하고本院에서多年實施試驗한바百發百中에特效잇슴을保證할것이오니一次服用하시압 (藥價는必히先金을要함)

藥價 一劑 十圓

京城府橋北洞一一六番地 濟衆院製藥所

朝鮮慶州名產南石眼鏡玉을要求하시려면

朝鮮京城鍾路五丁目拾八番地
眼鏡專門 實飾商會 電話光化門一〇三三番



(廾二金張脚대모體朝鮮慶州產紫色南石玉入) 六十五圓
(廾二金張脚대모體朝鮮慶州產白石玉入) 特品十五圓上品十二圓
(廾二金張脚대모體中國天然水晶玉入) 十一圓
(純대모體朝鮮慶州產白石玉入) 十二圓
(純대모體中國天然水晶玉入) 八圓九十錢
(學生用黑色대모體中國天然水晶玉入) 九圓五十錢
(瑞西式純대모體人造水晶玉入) 三圓五十錢
(瑞西製純익기로永久不變色學生用無體眼鏡) 二圓五十錢 三圓二十錢

注意 注文時半數以上에豫約金을要하오며先金注文하시면送料自擔하야드림니다

京城 培花女學校生徒募集

定員 (一)幼稚園五十名(二)普通科百二十名(各學年補缺生若干名)(三)高等科五十名(三學年補缺生若干名)
提出限 三月三十日
入學試驗 四月一日로四日까지上午九時

新築落成

(入院室完備) (診察隨意)
光州花園町十二 中央醫院 院長 金興悅 電話三二二番

醫學博士 渡邊晉
皮膚(皮膚病一般·整容手術)
泌尿(泌尿生殖器에關한疾患)
性病科(黴毒·淋病·下疳·)
診察時間(朝九時부터午後一時 午後四時부터同七時(但日曜日은午後四時부터)
京城黃金町二丁目(日本生命ビル東南裏角)電話本局八九四番

大陸고무

登錄商標 堅牢 美麗 京城
我고무 鮮鞋界 元祖
社長 李夏榮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京城(龍山)元町 電話龍山長三四番◆振替京城壹壹四八壹番
同會社總販賣部 京城鍾路(裁判所前)電話光化門七六五番◆振替京城七貳參參番

本商會는開業爾來顧客諸賢의愛護를蒙하와日益隆盛하옴은實로感謝不已하나이다 就今番形便에依하야同業者林秉鉉氏는立케되야本人等이引受하고業務를一層擴張하는同時에親切叮嚀과迅速酬應을本位로하야顧客諸賢의게萬分의一이라도報答코저하오니倍前愛顧하심을바라나이다

大正十四年二月一日
南滿洲四平街 長 電二三四三番
米穀委托販賣業 平北商會
主 金成善 金鉉彦 白

가뎡부인

가등정미소

인천쌀고르는녀직공 눈물과피를글거먹는 이정미소의내막을보라

◇오늘해도젓구나! 도라가는인천녀직공

톱포르는 녀직공 — 인천녀직공의원망의대상인정미소 — 직공생활

독자여러분은 반드시 과연하리라 작년가을에 녀공동맹파업으로 형세가험악하엿든 인천(仁川) 가등정미소(加藤精米所)──아즉도녀공들의불평이 가장 심한곳이다 과자는바람불고 눈보라치든구일(?)저녁때에 그곳을차자갓다 화정(花町)넓은길에 이골목저골목 각정미소에서 쏘다저나오는 녀직공들로

인산인해 집붐우엇고그들은 『아이들이 집에서 범석을하겟다』『간난이가첫날라고울터인데』하면서 밥구럭들을 손에들고다름질을하여집으로도라감을볼수잇섯다 그러나 오즉 가등정미소만은 아즉도문을 꼭꼭닷고으른렁으른렁도라가는기계에 쌀을붓고 한알두알뉘와돌피를 고르는 녀자들의원한이 더욱깁허가는듯하엿다 녀공의 수는일백팔십명──그들의나히는십사세부터 오십세까지! 그중에는 이십오세로 삼십세까지가 가장만타한다 저미기계를 사용한후로부터는 삼백여명의 녀공이 줄엇고그들이 처유리계에 올라안즐때에는 메시쩍고어지러워서 하로에도몃번식토하엿스며『토할때마다밧든구박, 지금다시생각만하여도 지긋지긋합니다』하면서 눈물이그렁그렁하는

녀공들의 하소연은참아 눈물이잇는자로서는 그대로 드를수가업섯다 그들의 가정은제물포부두의지게군이아니면거선에 짐삿는로동자들의 안해와딸인지라 집안일을허치고 그날그날의생활을보장키위하야 나왓는즉그들의 머리수건은 쌔와겨가 한데뭉처서 덕게가 안첫고무대쌍을뜨더서 치마를하여 입은사람이만타 그들은 강조밥에욱어지즐기로 주린창자를 그려쥐고 아츰여섯시부터 오후여섯시 까지일급최고 륙십오전 최저삼십오전의 삭전을위하야 가진구박을다밧는것이다 하로종일 쪽호리고 안저서쌀만드려다보고 잇는즉 저녁때가되면『쌀도뉘, 뉘도쌀』분간할수가업시아물아물한다한다 그들에게는 휴일(休日)도업고일년에일본의삼대졀긔를 제한외에는 음력정월초하로날하나가

피곤한몸 을쉬이는유일의명절이 될뿐이라한다 그러고 년말상여로는 북어한쾌에 수건두개식 주드라한다 그정미소에서 녀공들의가장 불평의초점이 되는것은 소위검사 감독이라는 사람들이 직공들의성적을 미인으로 표방을삼는것이라한다 그것도 검사가녀자인때에는 별문제가업고 남자인때에는 가장얼골이고혼녀자에게는일을수웁게 하여줄뿐아니라 직공에게 별별아첨을다부리는것 풍긔가 문란한것 여러가지로 보기어려운꼴이만타한다 창립한지 이십여년동안에 조선녀자의 피와땀을모조리글근 이정미소── 압흐로 얼마나 그들의 원한을씻치려는가?

자녀교육의방법(六)

어린아이와본능운동

九의一、먹으라하고 잡으라고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딴곳영양을 취하여야 될것이올시다 그런고로 처음부터 제가스사로 젓먹을줄을알게되고 머리를 돌려서젓울찻고젓먹을때에입, 목구멍, 얼골이공동하게되는것이니 즉 먹기를 위하야필요한 본능운동이올시다 차차손을내여밀고 무엇을손에 쥐여보고손에 잡히는대로입에 너흡니다 한두살된아이들이무엇이던지 보는대로 집어먹는것은우리가 잘아는배이올시다 또한오륙세만 되면가장식욕이 느려서 『나좀나좀』하고어머니의뒤를 따라단닙니다 아이들이 먹으라고하는것은 잠자리라는 종거라고 할수잇스나 부모가주의하지아니하고 달라는대로 아모것이나 주어서먹게하면 그것이 잘조화되지못하야 필경은 병에걸리기 쉬울뿐아니라 먹기를조화하는 것이버릇이되면 장래에 식욕에만 집착이되여 육체나정신상에 모든발달을더되게 합니다 어머니들의 제일주의할 점이거기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아이들은 무엇을 잡기를조화합니다 봄과녀름에는 잠자리채를들고단이며 오늘은 어데까지 잠자리를 잡으러갓다 근동 또한 매미를 잡으러단엿다는등 하고겨울에는 무동을타고 초가집웅마다 손을드려밀어서 새를잡어냅니다 잡으면 잡은것을엇더케하겟다는것은 문뎨가 아닙니다 다다만잡는것이 자미잇서 할뿐이올시다 어룬들이라도 눈압헤 **잠자리** 가날러가면잡어보라고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장한사람은 그마음을 만족식히기 위하야 총을메이고 산으로새를 잡으러갑니다새가먹고십던지새를먹어야될필요가잇서서그러는 것만은아니올시다 새가잡고십고 잡는것이 조화서일부러만흔돈을 허비하여 총을사고 힘드려산골길을 헤매이는것이올시다 넷사람들의 미개한생활을 생각하여보면 산과들로 다니면서새나즘생을잡어서 먹고 생활하든그시대가 썩오래인듯합니다 그시대사람들의 그성질이 유전적으로 지금우리들에게까지 미친것이라고도 생각할수잇습니다 아이들이 술래잡기나 숨박잡기등을 하기조화하는것도 모다 잡으라는 성질을 만족식히기위한 까닭이올시다 넷적에는 새나즘생을 잡는것은 먹으라는것이 목적이 되엿섯지마는 지금은 먹겟다는 것보다도 잡겟다는마음── 그것뿐이올시다 먼저 말한바와가티 아이들의 식욕이강한것이나 또 한무엇을 잡으라고하는 마음이 강한것이 모다본능운동의 하나이올시다

영국의단란한가뎡(三)

일할때는일하고놀때는놀아

◇남자는남자동무、녀자는녀자동무를모아◇

유쾌하게노는토요일과일요

K군은 녀자동무S양은남자 동무그들은 자긔의 동무들을다리고집에오기를 조화합니다 물론쌍방의 친구들이 그성격과취미가 그들에게로 합합할뿐아니라다 소간부모의

의향을 드러서교제 하는것이올시다 한주일에 한번식하는초대──토요일부터일요일까지──그집에서는 친척과 친구아들딸의 동무들을 초대하야식탁을가티 합니다 ──이것은빈부를 물론하고 그나라에서일반으로행하는 풍속도 되려니와별로히 훌륭히 차리지 도안는터인즉그다지 힘드는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초대하는날 저녁부터 와서저녁을 가티먹고 그날밤을 그집에서 묵고일요일아츰밥을 지난후에는 교회에를가던지 운동을가던지 하엿다가점심때에는 다가티 모힙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자유로친구를방문하고 마음대로 놀다가만찬이되면 한사람도 빠지지아니하고모히여서 식후에는담화、음악가뎡무도 추럼프가튼것을 하며유쾌하게놀고할머니는

귀빈을 맛는것처럼가족전부와손님전부가그압헤나아가 흥미잇는 작란을합니다 실로그집은평화와 쾌락、만족과희망이 가득하야 봄동산에 만발한꼿과가티 우숨이 그치지안는── 이것이 단란한가정이올시다 진정으로 단란한가정이올시다 열시반쯤되면 모다침실로 가서

變姓名入籍한 詐欺漢靑林敎主

구주와면장을맘락하야서 멀정한일홈으로이적하여

는사긔자인 청림교주 (靑林敎主)래두섭(太斗燮)에대한 여러가지부정한행위에 대하야는이미 본보에 보도하엿거니와 이제그가오래동안 세상에 숨어다니든가 인천으로오게된원인에 대하야동민바를소개하면 권리래두섭은 작년가을에 자긔와친구이고 또교도인 부천군계양면병방리(富川郡桂陽面兵房里)에사는 장신호(張信浩)를차저와서 면칠동안을숨어잇든중권긔장신호가그동리 구장(區長)임을 긔화로역여 자긔는 인천부령에 얼마간잇슬터인데 경찰의눈을 속이기어려우니당신이

무적증명 을해주면내가 이동리에사는 것으로 민적을하겟다고 부탁한후 군속모와도협의한결과 김도성(金道成)이라고변명하야 입적(入籍)을 하고 인천에와서 거주하고 잇섯슴으로일반은 김도성인줄만알고잇는데 사긔군 래두섭인줄은 몰랏는데 지난일월 초순에 인천시내두부호협박사건이 이러나자 인천서 고등계에서여러 가지 방면으로 범인을 수색중그아들래국현(太國賢)과 태을산(太乙山)이 가협의자로인치되자 래두섭도 슬그머니 그형적을 감추어바렷다는데권긔 입건사건에 대하야는군속과구장도죄를당하게되리라더라(인천)

仁川中央醫院 日曜無料診療、

일반병자를위하야 진찰시료를무료로

인천부외리 중앙의원장 안학수(仁川府外里中央醫院長安鶴洙)씨는 오래동안긔독교 독신자로 씨이제부터 매주일요일에는 언제던지 오후한시부터 동여섯시까지일반병자에게진찰、시료、(施藥)을무료로제공한다는바 이것은인천에서의 처음인동시 참으로일반은 안씨의독지를 칭송치안는이업다더라(인천)

海員養成所 尙今紛糾

취학학생은 일본사람뿐

인천(仁川)에 잇는 해원양성소(海員養成所)의동맹휴학을하엿든학생의 일부가 지난구일부터 공부시작을 하엿슴으로 문데는 거의해결되엿다는데학교당국자의말은 이미보도하엿거니와 그후학생측의말에 의하면 일부 취학이라함은 일학년생도중 일본인세명이 취학함에 불과하고그외학생들은 아즉도 취학할뜻이 업시 잇는동 정상(井上) 소장이자긔의 말은 성의가 잇는듯이일반에게 발표하나 실상은속히 일을수습하고자 하는데불과하고 그내면을보면 교장이학생편을 너무무시하고 일을처리하는것갓다는바 이로 말미암아일부학생은 퇴학원서까지 교장의손에바친일이잇섯다더라

廿五名無期停學

전부가무긔정학이다

정상교장이귀임한후동맹휴학한 학생에게 대하야 취지그것은판청하는터이니가 속히 취학하면 서서히상부에교섭하야승격식히도록하겟다고 학생을 권고하엿스나 별항보도와가티 일본인학생세명외에는 취학치아니하엿고 이십오명에대하야 무긔정학의처분을 지난구일에 교장의명으로 나리엿다더라

井上所長談

조토록하려고합니다

권긔이십오명에대한 무긔정학처분에대하야정상(井上)소장의 말을드르면

승격운동을하려면그다지학생측에서직접행동에나가지아니하여도조흘것인데 학생의신분으로그다지좃치 못한짓을하고 여러번타일럿더니그래도듯지아니하기로 할일업시 무긔정학처분을 한것인바 하여간학생에게 동정도하는 터이니가 조토록해결하려합니다하더라

高普係員談

별로간섭은아니하오

별항문데에 대하야 지난칠일에 인천서(仁川署) 고등계에서는 동맹휴학한 생도세명을 불러다가 자리를 무럿다는데 이에대하야고등계원은 말하되 별로간섭은 아니하려 합니다 물론 악화가된다하면 얼마간 간섭을 하겟스나 아직은동정만보는 중이외다 하고말하더라(인천)

悲慘한一家族

소작권을쌔앗기고 전가족이죽을디경

전남해남읍내(全南海南邑內)사는뎡청여(丁淸汝)는집안이구차하야 집도업시 남의협실에서살어가면서 일본인디주 옥정부차랑(玉井富次郞)의논아홉마지기를어더 소작하야 여섯식구가굴무락먹으라생활을하여오든바작년십월에는디주옥정에게대하야 소작료가 넘우무리하니 좀감하여달라고 다소의말이잇서서 서로사이가조치못하여젓는데동리 정과소작인뎡청여사이에이러한관계가잇는줄을알고여러가지로 디주를달래여 그소작권을빼아서 강달문(姜達文)에게주엇슴으로 뎡청여외여섯식구는굶어죽게된 비참한디경에이르럿다더라

奇人奇緣 (105)

金浪雲譯 盧心汕畫

九三、경호의편지

조곰잇다가 뎡희는 다시말을 이어서

『형님에게 편지하시거든그러케 말슴하여주십시오 얼마안가서리혼이 될터이닛가 뎡희로해서그러케 인도까지 다라나실것업다고、정말로미안해요 나에게안해라는 이름이 잇기때문에본국으로오시지못한다는것이든』

상호는부지중

『그럿습니다 암만해도리혼밧게는 도리가 업겟지오』하엿다 남의안해가되야서 자긔가 스스로리혼이란말을 하는것은 그다지 쓰릴것이업다고 하더라도

남어 그것을찬성한다하면 끗어나고분한생각이 아니날수 업섯다 아모리그러라 하더라도정숙하게생각할것이 아니냐 수 업섯다 아모리그렇다 하더라도 그대로 하여서도 그러케말할것이 아니냐 혼이아니될수잇느냐든지 하고 의리로 하여서도 그러케말할것이 아닌대 상호는 그러케말한다면 뎡희가 부엇을미둘수가잇슬가뎡희는 아조단념하여 버렷다

『그러면어머니던지 당신이던지 지벗서다왓고 게셧습니다 그러나 실혜부터 리혼할 작정이엇든것입니다』

한층 별리는소리로

『그러면어머니던지 당신이던지 아조단치게되엿다

실로뎡희의 실낫만한 소망도 아조뎡희의 실낫만한 소망도

『정말 말할수도업고말하지안을수도업고……』 그러나 세상에는 이상한사정으로 이상한착오가생기는일이 흔이 잇는것이 닛가 그러케만 생각하시지마십시오』 하고상호는 말하엿다 실로상호의 처디는 난처하엿다

『이로써 작별이되겟습니다다당신을맛나서 사정도잘알고、이세요』하고 칼로끈는듯이 안으로들어가버렷다 그러나 그것은 자긔의 안색을감추기위하야 다라난것이엇다 그는아마 자긔방으로가서 문을처닷고 또울것이다

상호는 엇절슐을몰으고 얼마동안을 멍하니서잇섯스나 하는수업섯다 뒤를따라가서 위로할수도업슴으로 무거운 가슴으로 그대로밧글몰리어노앗다

이로부터 수일후에 경호에게서는 과연모친에게로편지가왓다 그리고의사에게서도 가티편지가왓다 경호의편지는 이러한 긴편지이엇다

뎡희가 커를속이엇다고 한다는것은 무엇이온지 커는컨혀몰으는 일이로소이다 그러나그러한 일가튼면 견대기쉬운나 천가지의 거짓이라도 커는겟삽나이다 백가지의 속임이뎡희에게는즐겨용서하겟삽나이다 그러나어머니 커를원망하는대로 내버려두시압소서커는 다만뎡희를위하야 고십에고십을하면서 그러케 불실한남자로 원망을밧는것은원통한뿐이오나 뎡희의 이름을더럽히거나 뎡희에게 치욕을주는것보다는 낫겟삽나이다 커를 원망하는동안에는 뎡희는 긔속될것도업고 남의압헤나아가기도하려니와 만일사실을알게되면뎡희는남의압헤 나아갈수도업시되며 치욕을못익이어 그대로 살아잇지아니할것임니다 뎡희가 사귀니 허물이니하는것은아마사소한일일듯하옵니다 실상은 리백작에게서도편지가왓는대 백작은제가뎡희의허물을알고그리한 은제가 뎡희를 용서하엿느냐고 너무 능을도역이여 커니 그러한것이 업다고하며 뎡희는 충분히회개하엿스니용서하여주라고 그리케책 도하고또언제까지나 그럭지 것도업는 일이라고 하엿스나허물이라는 그것은 업삽나이다 가 무엇이던말은 업삽나이다 그러고 백작은 제가조곰도마음을 몰릴수가 업스면정식으로리혼수속을 하는수 밧게업다고 하야어려운 유서라도한 번반 하야다시잘 지나게하라고정말로 친절하게 써서보냇승니다 어머니 제가이편지당장을 하기가 얼마나쓰리엇는지 어머니밧게는 말할수업삽나이다 그러나커는 이것을도로허 다행으로 잠시라도남편을 속이는 사람을 안해로할수 업다고 리혼의 조건까지부치어서 보냇삽나이다 물론한씨권장은 뎡희의것이닛가 제가그것을 차지할 권리가업사오면모든영도 또한그러한 고로커는 다만선조의 묘디만차지하기로 하엿삽나이다 선조대로 남에게 넘겨서는안된다고정하여 나려오든 그것을불효경호에게 이르러서 남의것을맨들어 버리는것은 조상에게도 죄가크오며 그것을차저내라고 여러해를 고생하시던 어머니에게는 더군다나 불효이오나 그대로 단념하여주시옵소서 그대신으로 그동안에 나따는 호원이도 뎡희에게주어버렷스니까나종에는호원이가한씨권장의 주인이될것이오며 그러케되오면 한씨권장은역시한씨의 혈통으로 돌아올터이오니 이로써 용서하여주시옵소서 리혼수속을 마치기젼에는 귀국할수업사오며 그수속이지난후에는곳도라가서 사죄하겟삽나이다

불효자 경호상서

童話 복돌의모험(五)

그랫더니 디부왕은 보통사람으로는도뎌히 그자루를 잡지못할줄알고 허락하엿슴으로 복돌이가아모리처도 안케 불쏫이퍼지는무쇠자루를잡고나가는것을보고새삼스러히 놀랏슴니다

『어─참 주제넘은것을하는놈이구나 저놈을노처 서는안되겟다 이애들아저놈을 잡아라』

하고 호령하얏슴니다

그래서 수업는천은 귀신들은 각각무긔를 가지고 복돌이에게 향하야 치려덤비엇스나 복돌이는도모지 놀라지 아니하고전부터가지고 잇는몽동이를 다시돌라잡자맛기가 무섭게, 후려치고 착고를가지고 한숨에뛰어 임금님잇는 청으로왓슴니다

디옥에서 승전고를 울리며온 복돌이는말승냥이를삼으려갓든 때보다도 더한환영을 바닷슴니다 축하하는 큰연회가 버러지고 임금님이든지임금님의따님이든지자리에 나와안고 일동이 소리를합하야

복돌이만세

하고큰야단이엇슴니다 자─이것을 본임금님엽헤 잇든사람은 분이나서 견될수업섯슴니다 필경엽헤잇는 디옥의 착고를집어서단한번에 복돌이를 때려죽이겟다는무서운악한마음을내어가지고가마니 그자리를 떠나몸단속을하고 무심히 그착고자루를 잡앗슴니다 그랫더니 그자루가 빨가케 달아잇섯슴으로 큰변을 당햇슴니다

심사괴악한 남자의 손은쩍─하고타부럿슴니다 깜작놀라 흔드러떨러하엿스나 그리할 사록더타드러갈뿐임으로 경중경중뛰며 써이써이 울엇슴니다 그것을보고 거긔안젓든 일동은깜작놀랏스나복돌이는조금도소동치아니하고 뛰고뛰여 이러나그남자의손에 이컨부터 가지고잇든기름을 한방울 떠러드려주엇슴니다 그랫더니 이상하게도이때까지는떼까지타드러간줄알앗든 착고자루가 렬쇠손에서 떠러젓슴니다

불상하고 심사고약한 남자는 크게불에되인줄알고허둥허둥손을드려다보니 털쯧만한 상처도 업슴으로 너무긔가막혀서 입을딱버린대로 언제까지든지 거긔딱서잇섯슴니다 그모양이 매우우숨으로 거긔잇든사람은 다일시에우섯슴니다 더말할것업시 임금님따님도 재미스럽게 우섯슴니다

그랫더니복돌이는

『자─이만하면 거어히임금님따님을차지하게되엿슴니다』

임금님는 응락하엿슴니다 그러고 임금님따님는복돌이에게 오가리히고 어엿분손을 내밀엇슴니다

모커럼 복돌이가 디옥까지가서 가지고온것인데 복돌이와다른사람은 손을대이지도 못하는 위래한착고를 사철궁실안에만들어두는것이엇슴니다 뜰에잇는큰몰우에 장식하야두기로 하엿는데 그이튼날아츰에보니 이상하게도 착고가흔적업시 사라지고그림자도보히지아니하엿슴니다 이컨에잇든 디옥으로 떠러갓슴니다 그러나복돌이가 디옥에서무서운착고를가지고왓다는소문은 덕국덩말에까지도 소문이갓슴으로 그후에는 그러케무섭든덕국덩말사람도다시는또이나라를처드러오려고하지아니하엿슴니다

복돌이는 임금님따님과 결혼하기컨에 훌륭한교사에게 가서 학문과행신하는법을 배웟슴니다 복돌어머니도유복하게 지내게되엿슴니다(쯧)

멍텅구리 련애생활 (63)

살림의론

(一) 문패를동봉에 너흔까닭으로 (二) 멍텅구리성미로도 며로한중에 (三) 옥매의게 축출령까지당하고는 (四) 옥매의머리에 오즘의폭포

◇社 告◇

一、支局의名稱 尙州支局
一、支局의位置 尙州郡西門通
一、支局員의職氏名
支局長 朴晩泰
記者 金壽吉
記者 金錫根
記者 金宗樊
記者 朴寅玉

右와如히支局을設置하얏사오니管內에居住하시는愛讀諸位는新聞請求及廣告申託等一切을直接交涉하시옵소서

朝鮮日報社白

◇當二月八日부터
◇유社날 文藝映畵大公開
實寫 國際時報 全一卷
◇유社特作品 喜劇 二本棒 全二卷
◇유社代表的大作 連續活劇 幽靈의都 第三回第七、第八編四卷 全十五編三十卷上中
文藝劇 小公子 全十卷
松竹 유社 特 나이뎃트
團成社 電光九五九番

益益有望 萬病快治 新職業

最新式電氣及酸精療法을鮮漢文으로實地教授하야醫師同樣收入多大自由開業케하오니男女老少勿論하고醫業에有志人士及其他虛荒職業에失敗無業人은至急一生의安全不敗의實學實務를來學得業爲一層有利한出張所長사지無料認許함

東京電氣療法研究所朝鮮總支部 湖南線江景中町八十二番地

昨日은英語의世界!! 今日은에쓰페란토의世界!!

獨習用 敎科用 에쓰페란토研究 (一名世界語自通)

虛無 元鍾麟 著

定價金壹圓五拾錢 送料十一錢

世界同胞의精神은 발서世界의구석구석에瀰漫되여잇다 交涉은世界를完全히치안으면아니될時代는왓다 그實을完成함에가장急務 吾人은智識을世界에求하며 是速히世界共通語인에쓰페란토──學習容易、流暢自在、嚴正中立인此語를學修함에잇다 다시敎育制度에 日本帝國議會에數萬名의請願으로이에쓰페란토를小學校及中學校學科目에編入하자는建議가잇슨 그로보드라도 今年 切迫되여왓나알수잇슬것이다 더구나他外國語와달너 自習으로能히大成할수잇스나 다만至今까지그러케平易히 그럿케完全히된自習書가업슴을따름이엿다 著者盧無元鍾麟先生은玲瓏한性格 絶倫의熱情의所有者로 우리朝鮮新思想界의第一人者일뿐 何某를勿論하고모다아는바이다 氏는夙히世界同胞의大理想下에서 二十一年에東京外國語學校講習會에서講釋하든講本──에쓰語議席上에서永世不朽의名敎科書라고決斷된博士著인例題와로等을中에서不要를除省하며要를添加하야 純初學者의自習書로編述하엿든것인데 至今更히筆을加하야此를出版한것이다 本書는定價의低廉으로써 에쓰페란토精神에忠實하며 그講釋의平易緻密로써 初學者의自習에 多大한貢獻이잇슬줄안다

朝鮮各道師範學校 入學準備書 定價一圓五十錢 送料十三錢
官公私立 高等普通學校 師範學校 各種實業學校 入學試驗問題 解答 定價七十錢 送料十一錢
中等學校 地理歷史 理科 入學準備書 定價一圓 送料十一錢
最新 巡査看守受驗準備書 定價六十五錢 送料十一錢
高等普通學校 各種實業學校 模範入學準備書 定價一圓 送料十一錢
漢日鮮 新玉篇 定價一圓二十錢 送料十三錢
朝鮮地圖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詩集 新月 定價五十錢 送料九錢
戀愛小說 사랑과서름 定價七十錢 送料十一錢

(注意) 注文에는先金을本堂振替京城一二七二七番으로拂込注文하시요 京城府壽松洞六七番地

發行兼發賣所 新舊書籍出版販賣 文友堂 振替京城一二七二七番

以文堂 京城府寬勳洞一三○番地 振替京城一○二七五番

地方銀行의預金協定
今月中에는決定

京城組合銀行의預金利率의協定實施되以上地方銀行의協定도當然此에標準을行하지안으면眞實한金融界의協調는保키不能하야或境遇에는京城으로부터資金이地方에流出할憂慮가無하다하리라하는點이有하다勿論京城에서는協定利率同額으로本支店間에預金의異動은支障이無하나다른利率로本店에서支店에動케한事가

證明 된境遇에는相當히處罰키로되엿슴으로或程度外지는如斯한事가無하리라하겟지만은各地가同一히協調를保할事가完全한協定일것인데現在協定의成立된곳은平壤元山이細密의取扱上에도地方的事情에基하야幾分接配되여잇스나大體로京城과同率으로平壤은十一日부터實施할터이며大邱는벌서부터協定의意見은有한模樣이나尙히目下內定程度에不過한貌樣이오

木浦 로도協定協議中으로모다實施期의確定을見치못하얏스나느거도本月中에는決定될模樣인데協定未定의結果京城으로資金의地方流出의說도不無하나現在에는預金者側도多少其間의事情을考慮하야未知의地方銀行에卽時多少의利率로移한다함은疑問에殆히全部가各地共히京城과本支店關係가有한것임으로아즉如斯한念慮는無하리라더라

鮮銀、臺銀 配當不變

(東京十日發) 大藏省은臺灣銀行及朝鮮銀行의減配를勸誘中이엿스나海外信用維持라는理由로減配를中止하고今期株主配當은前期同樣으로臺銀七步朝銀六分의据置로決定되얏더라

農業倉庫法 改正案提出在近

(大阪電) 政府는近近現行農業倉庫法의改正案을議會에提出코자目下調査中인데同改正案에依하면農民으로부터直接消費者에賣出케됨으로中間의倉庫仲買의領域이狹少케되리라더라

限月短縮은 株界에好材料
京取는日本에서不信 平井勸信專務談

十日朝鮮京한勸信의平井專務는最近에日本株界事情에就하야語하되

最近株式界는投機株와投資株의分岐가益益鮮明히되어가니日本의金融市場은大銀行의手許에資金이넉넉하야郵船株鐘紡新株와如한것을買狙하는터이나大新等의投機株는投機를目的으로하는者間에는實買가아즉도盛行이지만眞實한仕手間에는漸次厭氣가生하야가는傾向이어今後에더욱이顯著히될것갓다

限月短縮 은人氣에非常히惡影響을주엇스나限月의短縮은實買의增加手數料의輕減等反히好材料로도볼수잇서市場의人氣와反對現象을呈할것갓드며目下市場의注目을惹起하는것은農商務省의兩分인바農商務省이現在政友會의手에잇슴으로商工省은憲政會의管掌이겟다볼수잇스나政友會側에는商工省은現在의農商務의分離인즉政友側으로부터大臣을出하고자하는希望者가잇는바商工省은

取引市場 其他一般經濟界와가장密接한關係가잇는이만큼政友憲政中어늬에서大臣이나올지가新業者間에는注目되는것이다政友會로부터商工大臣이나올지憲政會로부터나올지는未知이나兩政黨의政綱에相違하는點이잇슨즉相違한影響을與할것이다京取株의日本市場上場說은全問題도되지안는것으로上取濱取等取引所株에는자미를보지못하야取引所의內容實狀等도그리조치못한이周知되어取引所株에도仁取이면多少希望이잇스나京取을日本市場에서보기는어려운일이라할수밧게업다云云

倉庫貨物增加

京城銀行集會所調査=一月中府內에漢銀商銀殖銀運大兩龍山共益社京城證等八營業倉庫의保管貨物은

入庫 三五三、〇六五圓 四六九、二六六圓
出庫 三七一、六三五圓 五四七、三四四圓

으로月末在高는七〇、三〇五個二、一三八、四〇八圓인데前月末에比하야個數는三、三八一個金額은三一、〇五一圓의增加를示하얏고主要出入貨物은如左하더라(單位百個)

	入庫	出庫	月末高
籾	二	一一	三四
玄米	一九	一八	二一三
白米	一	一	一
糯米	三	九	三
麥	二四	六四	一〇二
粟	二九	一三	三四
大豆	九	一〇	六
小豆	三七	三〇	六四
其他豆類	四	二	三
雜穀	三九	九	六八
麥粉	一〇	五	五

鐵道貨物不況
粟은依然旺盛

鐵道貨物은昨今如前히不動하야一日의發送噸數六千噸程度로日曜日에는四千噸臺에下하나其中에獨히旺盛한것은粟의輸入이오次에는勝湖里의세멘트等이며其外에는目下仁川發淸州行의肥料가約四十車와淸州發京城、平壤、大邱行의粟貨이七八十車이오

湖南線 의旱害地方에大邱大田方面에서關係業用의粟의供給計劃이잇섯스나中止된貌樣이오其他에는鎭南浦發의繼이湖南線及沃川、金泉方面에多少出動되고新炭은例年보다出廻가少하고咸興米의出廻도不良하더라

鮮銀當期決算
配當六分

(東京十日發) 朝鮮銀行當期株主總會는二月廿五日에開催할터인데利益金分配案은如左하더라

一、當期總益金 三三、三二九、〇〇〇
　　總損金 三一、六九〇、〇〇〇
差引 純益金 一、六三九、〇〇〇
內
一、損失補充準備金 一二一、〇〇〇
一、配當平均準備金 三三、〇〇〇
一、役員賞與金及交際金 六五、〇〇〇
一、舊株配當金(年六步) 一、一二〇、〇〇〇
一、新株配當金(年六步) 三〇〇、〇〇〇

尙히木本良太郎氏는同總會에서常任監事로選任될터이라더라

總損益三分一減

鮮銀當期決算은別項東電과如한바此를前期에比하면重役賞與六萬五千圓配當金百四十一萬圓은前期와如하나損失補充準備金九千圓配當平均準備金七千圓純益一萬六千圓이모다減少되엿다그런대此로는問題가되지안으나總益金은七百二十三萬六千圓總損金은七千二百二十萬圓으로前期의約三分之一에近한激減을來하엿다는바此는一面行員의節約에도依하나主로業務를堅實케하려고大緊縮을行한結果이라더라

三製粉實現
豐國은十一日起工

京仁間에서競爭하는製粉會社는豐國、日本、滿洲의三社로日淸製粉도出馬한다는說이有하야此間에提携說이生하야折衷中이든바提携는成立치못하고各社自行動을取케될模樣으로茲에豐國、日本、滿洲三製粉會社의出現을見케되야其中에豐國製粉再興은決定되얏슴뿐아니라從來의五百「바렐」을一千「바렐」로二倍를增加하야

設計中 인데來十一日에新敷地에起工式을擧行하야八月新小麥收穫時外지는完成케할豫定이라고當該社長은말하얏고日本製粉은仁川의工場敷地가當局의容認한배되지못하고他에代替物色中이나其實現은確實하고滿洲製粉會社도豫天所在의機械利用策으로豫히希望하얏슴으로其資金如何함을如何히하든지調達되리라더라

鐵珠板

▲減配를하느니重役賞與를減하느니 傳說이區區하든鮮銀臺銀은모다對外信用維持라는理由로配當据置를決定하얏다고▲減配할原因이잇스면此를斷行하야內容을充實히하는것이도리혀信用을堅固케할것인데、外形만차리는것은좀危險한것이아닐가 結局은對外關係보다普通銀行만못생긴便이엇지 인커는所謂中央銀行의威信도多少顧慮할必要가잇슬듯▲勸信平井專務同『京取株는日本市場에서不歡迎하나仁取면上場可能이라고』京仁兩取合併論은京取側이尤緊

期米

仁川期米 第一報 (十二日)

止價比較表

	昨後止	今後止	比較
當限	—	—	—
中限	—	—	—
先限	三四、六五	三四、八〇	一五高

前場膠着

昨後場阪地止價三十八圓〇九錢의報와共히三十四圓六十五錢에場을止한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阪地初付三十八圓〇九錢인昨止同樣의報를據하고三十四圓

六十錢 에場을始한後阪地四節을頁하야五節六十九錢外지跳返하엿다가阪地二丁低落인〇八錢을受하고六十二錢外지小弛한後阪地九節十錢의小高로結局六十六錢에場을止하니高低의差는九丁이며阪仁의鞘는三百五十五丁이더라

當分小捌形勢

正米에比하야割合的低價에잇는期米는實米自體의如何를不拘하고些少한弱材일지라도電光石火의氣分을帶하야곳反落을招致하

米豆餘話

▲舊正을지나고一朝降雪이쌓이어겨울만못하지안은突寒을促進하엿스나 恰然한봄 긔운은隱然中潛在하야積雪을녹이는그威力은果然春王의使命을띄인듯하다▲各地在米의潤澤과外米關稅免除로期正米共히軟態에陷하나減穀期의接近함을따러不知中底堅의勢를作함을보면凶作惡觀의本色이또한업지안타▲이와가티時期의時期와事情의事情을따러大自然의現象을演出할것을알겟다▲그러한데目下의 現狀으로는軟軍도用武할餘地가업스며硬軍도當分躊躇하는狀態로政府買上成績如何를企待하는模樣인듯▲兩軍의宣戰布告日이라할만한米十二日부터는一陣狂風의波瀾이업지안으리라고

는過敏의行動을示한다그러나그賣方도採算上觀念이업지아니하야利喰을急히하는傾向이不無하며反面으로買方은前途供給不安의槪念이또한업지아니하야買物을依然支持할뿐더러오히려低落을待하야安心買占하려하는計劃에出하는模樣인데果然供給不足

政府買上과企待

對外米의輸入狀態가如何히局面을展開케할는지참으로正米의事情을注目치안을수업다

現下各地의商勢는殆히鈍狀을呈하야一張一弛의機運을示할뿐이다果然環境의事情으로보면買方으로는時期의關係上買占策의必要를感함이不無하며賣方으로는各地在米가依然潤澤함을不拘하고米自體는如一히底堅의勢를作하고共히採算上無違한買를許치안는現狀임으로兩方은動機를待할뿐인데政府米買上의成績이如何할는지참으로來二日부터三日間을두고萬一高價로豫期의數量을買了한다하면自然浮動米를一掃할것이며따러서一時處理키難하든大受米의消化力도增進케되야稍漸反騰을見하리라豫想하며此와反對의狀態를呈하는때는도리혀低落을告하지안을가하는推測도不無하다고云云

前場

	當限	中限	先限
一節	—	三四、二一	三四、三〇
二節	—	—	三四、三〇
三節	—	—	三四、三八
四節	—	—	三四、三〇
五節	三四、〇〇	—	三四、三九
六節	—	—	三四、三八
七節	—	—	三四、四〇
八節	—	—	三四、三二
九節	—	—	三四、三五
十節	—	—	三四、三六

後場

	當限	中限	先限
一節	—	三四、四〇	三四、七二
二節	—	—	三四、六五
三節	—	—	三四、六四
四節	—	—	三四、六〇
五節	—	—	三四、六〇
六節	—	三四、四八	三四、六八
七節	—	—	三四、六八

取組高

當限	三、二〇〇
中限	七、四〇〇
先限	三、六〇〇
賣買石數	一九、六〇〇
本期總高	三六、七二一、四〇〇

仁川正米膠着
正租는一厘高

各地期米의一張一弛와共히正米界는殆히閑散不振하야今朝玄米는三等三十四圓六十錢四等三十四圓二十錢인三日間膠着으로地廻米는三十三圓三十錢인十錢反高를示하며精白米는三十九圓인亦不變으로正租는在來種十錢五厘改良種十錢七厘인各一厘를反騰하엿더라

大阪期米 (十日)

前場		後場	
寄 當中	三七、一〇	止 當中	三七、一七
一節	三八、〇四	六節	三八、〇九
二節	三八、〇九	七節	三八、〇八
三節	三八、〇五	八節	三八、〇八
四節	三八、一〇	九節	三八、一〇
五節	三八、一〇	十節	三八、一五

東京期米 (十日)

前場		後場	
一節	三九、三九	五節	三九、四四
二節	三九、四〇	六節	三九、四一
三節	三九、四六	七節	三九、四五
四節	三九、四〇	八節	三九、四〇
五節	三九、四五		
六節	三九、三五		

各地期米 (十日)

	前場	後場
兵庫	三七、四四	三八、〇〇
下關	三七、四二	三七、八〇
桑名	三九、〇〇	三九、一三
東京	三七、一二	三七、一二

各地期米比較 (十日)

	昨前止	今前付	比較
大阪	三八、〇九	三八、〇九	同事
兵庫	三七、八〇	三七、四四	一五低
下關	三七、七七	三七、七七	一低
桑名	三七、一九	三七、〇九	一〇低
東京	三九、四八	三九、三九	九低

短縮後限月如何

昨今市場의큰問題인限短의反對運動이結局奏効되지못하고來四月부터는短縮이實施된다하면限月은如何히할가重大한問題일것인바이에對한從來의案은二者가잇서

(一)現在와如히一個月을單位로하야二個月制로하던지

(二)二十日을單位로하야三回制로하는二種의案이잇섯스나가장振新한案은十、十五日을單位로하야、四回、制로하는것이니이案은左와如한便宜가잇다

(一)會社의決算期其他月末關係의點에잇서서二十日制와如한不便이업고

(二)當先의鞘關係와當限落後의先物이四十五日이되는故로比較的長期로稱思惑의妙味가잇시될지니短縮後의限月은十五日을單位로함이가장適當한方法이라겟다

長期諸株乘替

今日은長期受渡日인故로左記諸株의乘替商內가잇섯다

▲鮮銀新株가十六圓에八十枚▲商銀一新株가二十二圓에二百三十枚▲韓銀株가二十四圓六十錢에五十枚▲朝紡株가七圓六十錢에三百五十枚▲京電株가五十五圓六十錢에六十枚▲京電新株가十四圓六十錢에二百枚▲勸信株가三圓六十錢에千枚▲寧新株四圓에二百枚

株式

京取市場 (十日)

京取短期取引

株名	前付	前止	後付	後止
京取	二三六〇	二三四〇	二三九〇	二四四〇
仁取	—	八六〇〇	—	九〇〇
仁新	—	—	—	—
安取	—	—	—	—
鐘新	一〇五〇〇	一〇四〇〇	一〇四六〇	一〇五九〇
大新	八三一〇	八三五〇	八三八〇	八四〇〇

前場續落
(昨日終價와前場終價比較)

京取五〇低 鐘新二〇〇低 大新八〇低 仁取 五〇低

人氣又復軟化
諸株一齊臺割

昨後場은이어今朝亦是阪電이軟弱하야大新八十二圓二十錢鐘新百三圓九十錢大引이엇슴으로當地人氣는又復軟化하야大新八十圓鐘新百四圓臺割이엇고이어仁取도一圓의臺割이라할수업고必然各大臺割이잇스리라는悲觀한人氣이엇스니昨前場에臺株復된諸株가今朝는又復各臺割로京取二十三圓仁取八十九圓鐘新百四圓大新八十二圓臺로續落商狀을呈하얏다

續落은事理當然

昨前場에引返된듯한商情이又復續落步調로弱氣一方을思케하나이는相場上事히當然한事라할수잇스니昨年末로부터前途에豫想할수잇는好材料卽米國의好景氣爲替關係에依한物價高、金融緩慢、外債成立等의豫想과日銀利下樂觀、日露交涉成立으로생길

對露通商好望 等을根據로하야旺盛한買人氣를招致하야初立會로부터奔騰商狀을呈하고買進한터이나日本의財界는아즉도整理途程에잇서前途에許多한難關이橫在한實情인즉好材料에心醉하야買過한反動이不無할지며그外에도貿易의大入超持續爲替恢復傾向으로

綿絲의大崩落

政府의非募債主義或은物價對策等으로通貨收縮의形勢가漸次顯著한것等이株界에惡影響을주는一面또한取引所株의至大한材料인限短反對問題가아즉도五里霧中에잇는터인즉相場의形勢를逆轉하면續落步調로一大崩落을現出하야大低가잇슬듯하다할수잇다

前場諸株步調 (十日)

▲京取 二三六〇—三三〇—二四〇—
▲仁取 八六〇〇—
▲鐘新 一〇五〇〇—一〇四〇〇—一〇三九〇—
▲大新 八三一〇—八三五〇—八三〇〇—八三二〇—

前場主要株賣買

▲京取二百枚(賣)白樂 成濟間(買)洪金 辦田中新田南吉見▲鐘新二百五十枚(賣)成濟 市川趙(買)白樂吉見新田▲大新九百枚(賣)吉見成濟 新田白樂 市川趙(買)白井吉見田中李智金秀南市川

長期受渡高 (十日)

株名	株數	金額
鮮銀新	八〇	一、二八〇
商銀一新	二三〇	五、〇六〇
韓銀	五〇	一、二三〇
朝紡	三五〇	二、六六〇
京電	六〇	三、三三六
京電新	二〇〇	二、九二〇
勸信	一、〇〇〇	三、六〇〇
寧新	二〇〇	八〇〇
計	二、一七〇	二〇、八八六

後場反騰
大引에跳返
(前場終價와後場終價比較)

京取 七〇高 仁新 一〇低
大新 一四〇高 安取 一〇低
鐘新 一六〇高

後場은前付가鐘新百五圓으로大新小高에當地는大新京取가又復恢復으로初付이엇스나綿絲低落으로一服狀態를呈하야阪電不變에當地는一齊히衝散不氣乘으로觀望中이다가阪止가騰하야鐘新百五圓六十錢大新八十四圓에當地買氣沸騰하야京取는二十四圓四十錢大新은八十四圓鐘新은百五圓九十錢에大引이엇다

後場諸株步調

▲京取 二四〇—二四四〇—
▲仁取 九〇〇—
▲安取 九〇〇—
▲鐘新 一〇四六〇—一〇五〇〇—一〇五九〇—
▲大新 八三八〇—八四〇〇—八四〇〇—

代引算定日步

株名	算定	代引	日步
京取	二四〇〇	二三〇	三
仁取	八八〇〇	八〇	三
仁新	三〇〇〇	八〇	三
鐘新	一〇五〇〇	八〇〇	三
安取	一〇〇〇	八〇	三
大新	八四〇〇	二九〇	三

以上二日分日步

短期賣買高 (十日)

合計 一千九百五十枚
累計 十九萬一千九十枚

大阪長期株式 (十日)

株名	前付	前止	後付	後止
鐘紡	三三〇〇	三三〇〇	三三九〇	三三九〇
同新	一〇五〇〇	一〇五〇〇	一〇五〇〇	一〇五〇〇
大株	九〇〇	九一〇	九一〇	九一〇
同新	八四〇〇	八四〇〇	八四〇〇	八四〇〇
郵船	八二〇〇	八二〇〇	八二〇〇	八二〇〇
同新	三一四〇	—	—	—
商船	四九〇〇	四九〇〇	四九〇〇	五〇〇〇
同新	一四〇〇	一四〇〇	一四〇〇	一四三〇
日糖	一〇九〇〇	一〇九〇〇	一〇九〇〇	一〇九〇〇
東紡	一三九一〇	一三九〇〇	一三九〇〇	一三九二〇
大新中引	八〇〇	—	—	—

大阪短期株式 (十日)

株名	前付	前止	後付	後止
鐘新	一〇五〇〇	一〇三九〇	一〇五〇〇	一〇五九〇
大新	八二九〇	八二三〇	八四〇〇	八四〇〇

大阪短期步調 (十日)

▲前場大新 八二九〇—八二三〇—八三四〇—
▲前場鐘新 一〇五〇〇—一〇三九〇—
▲後場大新 八四〇〇—八四〇〇—
▲後場鐘新 一〇五〇〇—一〇五九〇—

橫濱生糸 (十日)

	前場	後場
當限	二二四〇	—
先限	二二五四〇	—
武州格現物	—	—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 仲買店
電話 長一三一四 六五五 一〇五一 番

청명관
うこひ日

慢性困難者도大喜한全治者頗多 無料詳報 ●播磨明石市●橫山藥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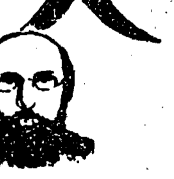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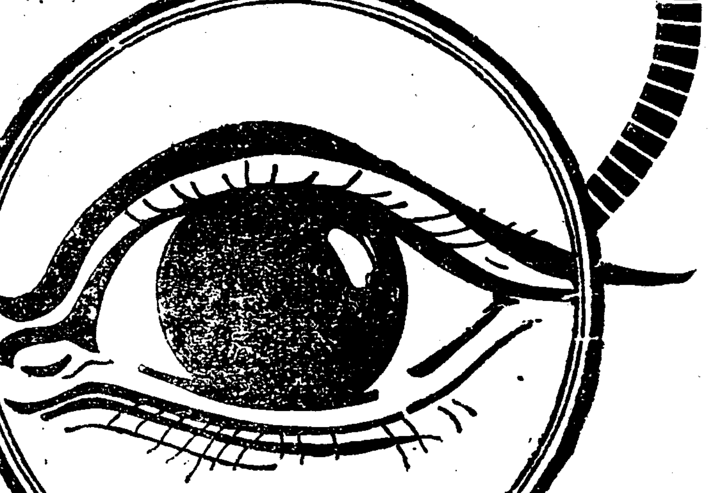
●當二月七日부터特撰大映畵!
人情大活劇 恐怖의城 前後篇全十二卷
米國大파라마운트社大力作
學生로맨쓰 天才와惡戱 全六卷
작크비클ー드氏主演
◎豫告◎
文藝大活劇 大名畵近日封切
스파루다의마스곳드
米國파라마운트社空前의大作品 最長專萬二千呎
第一部 腕力과蠻勇 第二部 狼의塔
大文藝詩劇 아담과이브 全八卷
京城仁寺洞 朝鮮劇場 電話光二〇五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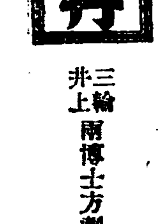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 廣澤正次郎
仁川府海岸町三丁目 電話 六五・七〇・一六〇番 (〇マ)又ハ(マ)

米雜穀肥料委托賣買
㊙ 廣澤正次郎
仁川宮町二丁目 電話長三〇七番

二月三日火曜부터晝夜二回公開
實寫 水 道 全一卷
米國폭쓰社 大喜劇 野外生活 全五卷
米國월니암폭쓰社 史劇 巖窟王 全十卷
아렉카산다주ー마氏原作 (一名海王星)
豫告 近日上映
活劇 雷 鳴 全卷
폭쓰社 活劇 快漢의夜嵐 全六卷
封切場 優美舘 電光三九五番

감긔와 신열에 實効散
感冒는두려운 生命에는病 實効散을服하시오!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送料二錢
本舖 師岡天然堂 東京神田明神下 振替東京一三七二

대학목약 大學目藥


大學目藥은 도라홈、돌림眼疾、벽한눈、星目、흐린눈、산눈、血目、打撲、其他眼疾一切에 効力이第一이오
十歲以下는小兒用大學目藥이잇소
參天堂合資會社 大阪市北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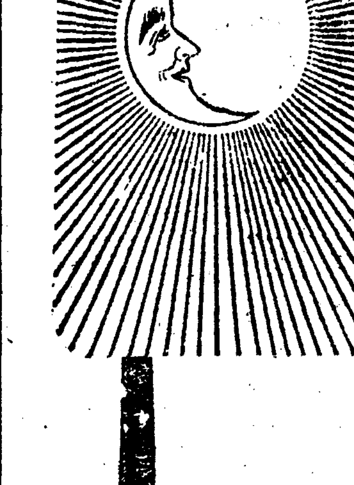


仁丹을用한人 胃腸强健
三輪井上 兩博士方劑

淋病梅毒根治新藥
金言 資本은貯蓄의結果로다(二)

養鷄圖書
名古屋市南區瑞穗町(振替名古屋一八三九番)
目錄 養鷄之業無代 神呈諸으로부터 證據葉書一枚로 主義와本社의 內容을知하시오 養鷄之日本社

果樹苗木
二十萬本有 說明書定價表無料進呈
岡山縣赤磐郡萬富局內 小林園


品質本位
花王石鹼 (화왕비누)
로定하시오
特徵 水에도 溫湯에도 泡立이 良好하며、又中途에溶崩치안는 매우良好한品質
良好品愛用 은참으로節約
常用비누의撰擇은반다시 廉價・純良・卓効 三件이具備한無二의良品
花王石鹼의光榮
帝國陸海軍 鐵道省 東京帝國大學醫學部 京都帝國大學醫學部 九州帝國大學醫學部 東北帝國大學醫學部 全國各醫科大學 慶應義塾大學醫學部 日本赤十字社 恩賜財團濟生會 各府縣立病院御用